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|--|--|
| <h1>보도자료</h1> | 보도일시 | 2018. 9. 28.(금) 12:00 |  통계청 |
| | 배포일시 | 2018. 9. 27.(목) 14:00 | |
| | 담당부서 |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| |
| | 담당자 | 과 장 : 양동희(042-481-3720) 사 무 관 : 경은숙(042-481-3735) | |

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

- 본 자료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200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중 「1인 가구 현황 및 특성」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임
- 수록된 자료는 미상을 제외하여 표의 합계가 다르며, 집계기준의 차이로 기 발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□ 요약 | 2 |
| □ 본문 | |
| I. 1인 가구 변화추이(전수부문 '00년~'17년) | |
| 1. 1인 가구 | 8 |
| 2. 성별·연령별 | 10 |
| 3. 지역별 | 13 |
| 4. 거처의 종류별 | 16 |
| II. 1인 가구 변화추이(표본부문 '00년~'15년) | |
| 1. 혼인상태별 | 20 |
| 2. 교육정도별 | 23 |
| 3. 점유형태별 | 26 |
| 4. 사용방수별 | 30 |
| 5.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유무별 | 33 |
| 6. 직업별 상위 10위 | 35 |
| III. 미혼 1인 가구 변화추이(표본부문 '00년~'15년) | |
| 1. 연령대별, 지역별 | 36 |
| 2. 점유형태별 | 41 |
| 3. 사용방수별 | 45 |
| 4. 직업별 상위 10위 | 49 |
| □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| 50 |

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[요약]

1. 1인 가구 전수부문('00년~'17년)

1인 가구가 2015년 27.2%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,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.6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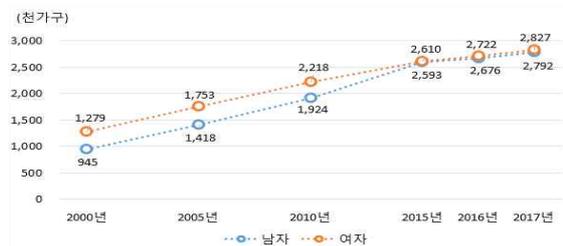
-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.6% 증가함
 - ※ 일반가구는 2000년 1,431만 가구에서 2017년 1,967만 가구로 37.5% 증가

- 1인 가구변화를 성별로 보면
 - 남자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2017년 279만 가구로 195.4% 증가함
 - 여자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.9% 증가함

[1인 가구 변화 추이 : 2000-2017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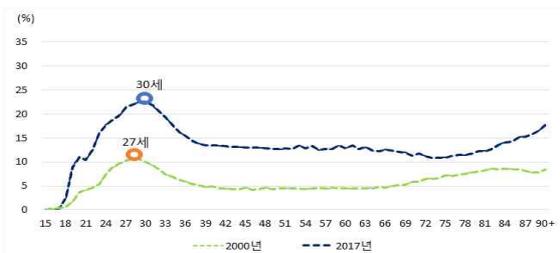
[1인 가구 성별 변화 추이 : 2000-2017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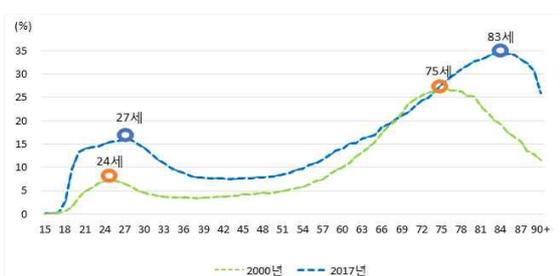
2017년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30세, 여자는 27세와 83세로 나타남

- 일반가구원 대비 성별 연령별로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
 - 남자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2017년 30세(22.5%)로 나타나 2000년 대비 3세 높아짐
 - 여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연령이 2017년 27세(16.0%)와 83세(34.4%)로 2000년 대비 각각 3세, 8세가 높아짐

[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비율] 남자 : 2000년, 2017년



여자 : 2000년, 2017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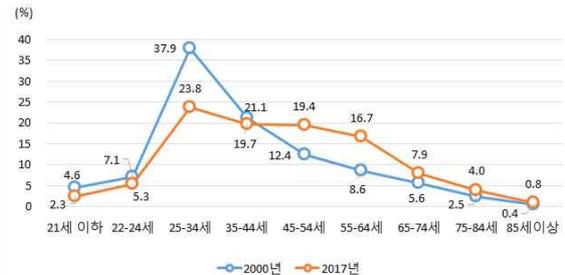


1인 가구 중 남자는 45세 이상에서 증가, 여자는 65~74세 연령대에서 감소

□ 1인 가구를 성별로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- 남자는 25~34세 비율이 2000년 37.9%에서 2017년 23.8%로 감소하고,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
- 여자는 4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나, 65~74세 비중은 2000년 23.7%에서 2017년 16.0%로 감소함

[1인 가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 : 2000년, 2017년] 남자



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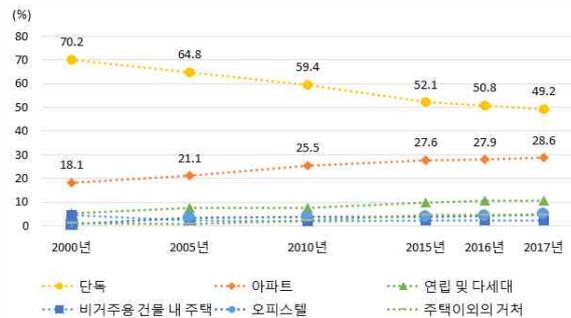


1인 가구의 주된 거처는 「단독주택」이나, 그 거주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, 「아파트」와 「연립·다세대」 거주비율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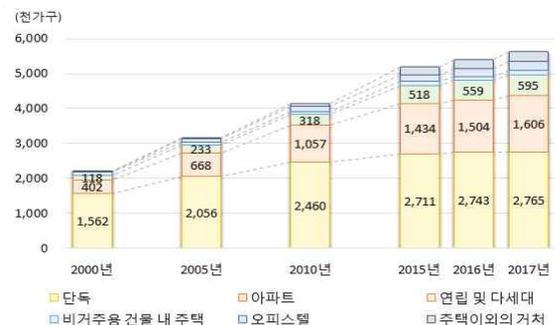
□ 거처의 종류별 변화를 살펴보면

-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70.2%가 「단독주택」에 거주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49.2%로 50%이하로 낮아짐
- 「아파트」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 18.1%였으나,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8.6%를 차지함
- 「연립 및 다세대주택」은 2000년 5.3%에서 2017년 10.6%로 5.3%p 증가함

[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비율 : 2000-2017년]



[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분포 : 2000-2017년]



2. 1인 가구 표본부문('00년~'15년)

1인 가구의 「사별」 비율은 감소하고, 「이혼」 비율은 계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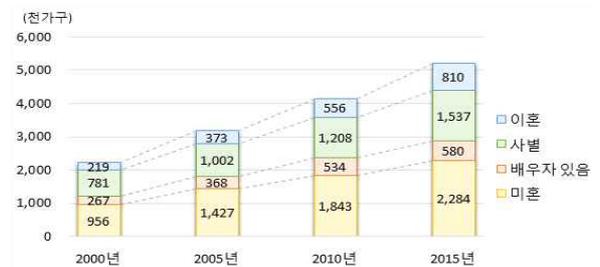
□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보면

- 「미혼」은 1인 가구의 주된 혼인상태로서 2000년 43.0%, 2015년 43.8%임
- 「이혼」은 2000년 9.8%에서 2015년 15.5%로 5.7%p 증가
- 「사별」은 2000년 35.1%에서 2015년 29.5%로 5.6%p 감소

[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비율: 2000-2015년]



[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: 2000-2015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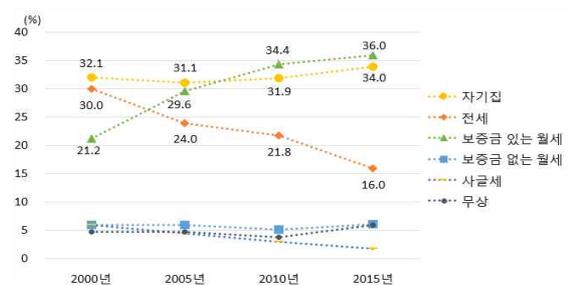


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5년에는 「자기 집」이었으나, 2010년 이후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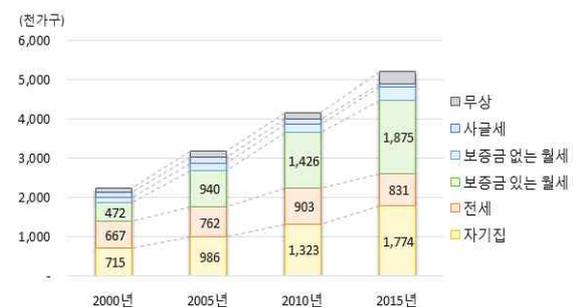
□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살펴보면

- 「전세」는 2000년 30.0%에서 2015년 16.0%로 14.0%p 감소, 같은 기간에 12.7%p 감소한 일반가구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
-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는 2000년 21.2%에서 2015년 36.0%로 14.8%p 증가하여, 9.6%p 증가한 일반가구보다 증가 폭이 큼
- 「자기 집」인 비율은 3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
[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비율: 2000-2015년]



[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분포 : 2000-2015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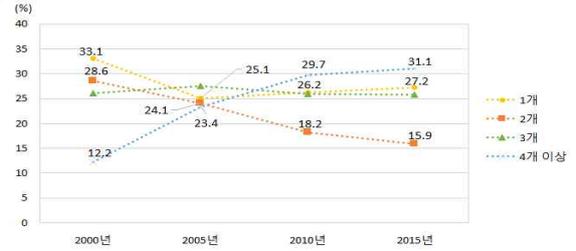


1인 가구 중 사용방수 2개 이하는 감소하였고, 사용방수 4개 이상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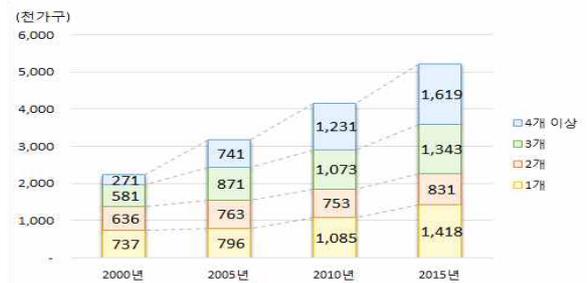
□ 1인 가구의 사용방수 변화를 보면

- 사용방수 「1개」는 2000년 33.1%, 2015년 27.2%로 5.9%p 감소하고, 사용방수 「2개」는 2000년 28.6%, 2015년 15.9%로 12.7%p 감소
- 사용방수 「4개 이상」은 2000년 12.2%, 2015년 31.1%로 18.9%p 증가

[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분포: 2000-2015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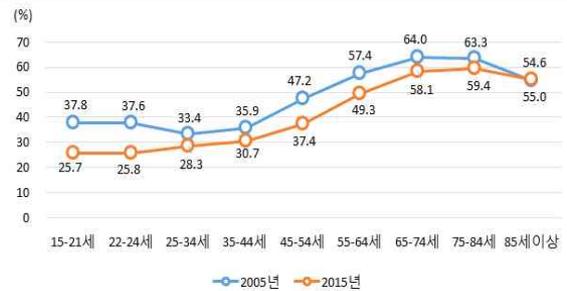
[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1인 가구의 「종교 있음」 및 「사회활동 참여」 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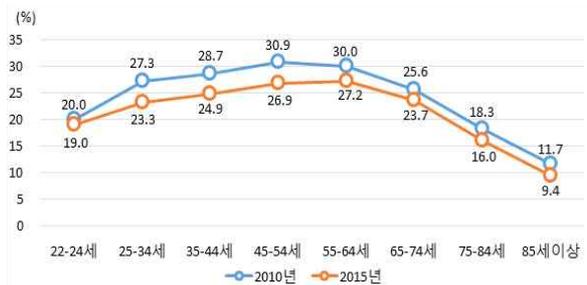
- 1인 가구의 「종교 있음」 비율은 2005년 46.3%에서 2015년 41.9%로 4.4%p 감소, 연령대별로 보면 8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「종교 있음」 비율 : 2005년 2015년]



- 1인 가구의 「사회활동 참여」 비율은 2010년 26.6%에서 2015년 23.3%로 3.3%p 감소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「사회활동 참여」 비율 : 2010년 2015년]



3. 미혼 1인 가구 표본부문('00년~'15년)

미혼 1인 가구의 25~34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, 35세 이상은 증가하였고, 동지역에서 미혼 1인 가구비율은 감소하였고, 읍면지역에서는 증가

-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25~34세 비율이 2000년 51.9%에서 2015년 38.0%로 감소
 - 35~44세가 2000년 17.5%에서 2015년 24.3%로, 45세 이상은 2000년 5.5%에서 2015년 19.5%로 지속적으로 증가함
- 지역별로 보면, 읍면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미혼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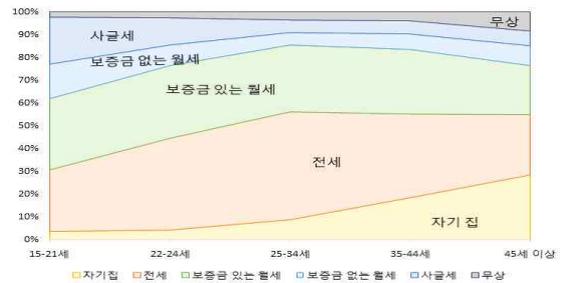
[동읍면부별 미혼 1인 가구의 비율 : 2000-2015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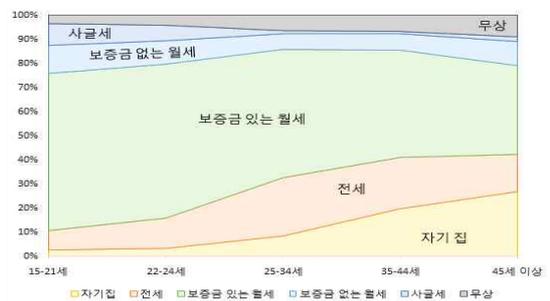
미혼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0년에는 「전세」로 나타났으나,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로 변화

- 2000년 대비 2015년 점유형태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
 - (전세) 2000년 대비하여 2015년 「전세」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 - (보증금 있는 월세)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됨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] 2000년



2015년



미혼 1인 가구의 「사용방수 2개」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고, 「4개 이상」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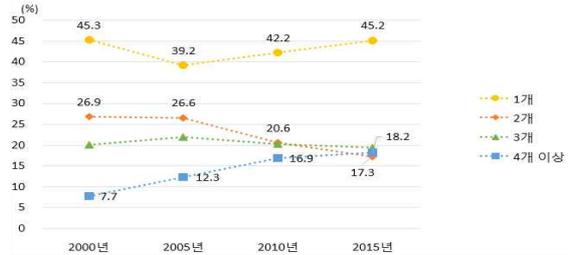
□ 1인 가구 중 미혼은 「사용방수 2개」 인 비율이 2000년 26.9%에서 2015년 17.3%로 9.6%p 감소

※ 전체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12.7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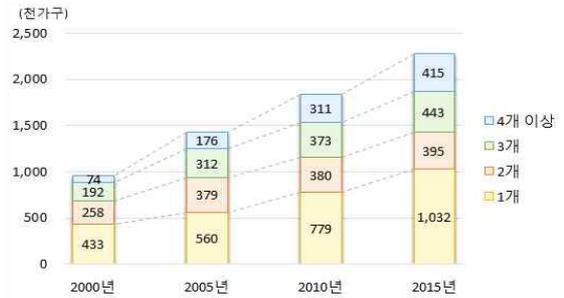
○ 1인 가구 중 미혼은 「사용방수 4개 이상」 인 비율이 2000년 7.7%에서 2015년 18.2%로 10.5%p 증가

※ 전체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18.9%p 증가

[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[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분포: 2000-2015년]



미혼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은 2000년에 「소매업체 판매 종사자」가 가장 많았으나, 2005년 이후에는 「경영관련 사무원」으로 변화

□ 2015년 직업(소분류)은 경영관련 사무원이 12만 9천 가구(8.1%)로 가장 많고, 매장 판매 종사자 9만 2천 가구(5.8%), 음식서비스종사자 4만 8천 가구(3.0%) 순

미혼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별 상위 5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순위 | 2000년 | | | 2005년 | | | 2010년 | | | 2015년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직업 | 가구수 | 구성비 |
| 1위 |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| 48 | 7.4 | 경영관련 사무원 | 90 | 9.7 | 경영관련 사무원 | 120 | 9.1 | 경영관련 사무원 | 129 | 8.1 |
| 2위 |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| 33 | 5.1 | 매장 판매 종사자 | 69 | 7.5 | 매장 판매 종사자 | 80 | 6.1 | 매장 판매 종사자 | 92 | 5.8 |
| 3위 | 계수사무 종사자 | 28 | 4.3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40 | 4.4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46 | 3.5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48 | 3.0 |
| 4위 | 자동차 운전 종사자 | 19 | 2.9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35 | 3.8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35 | 2.7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48 | 3.0 |
| 5위 | 사무 지원 종사자 | 18 | 2.8 | 회계 및 경리 사무원 | 32 | 3.5 | 영업종사자 | 33 | 2.5 | 주방장 및 조리사 | 43 | 2.7 |

*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은 제5차,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

I. 1인 가구 변화 (전수부문 '00년~'17년)

1. 1인 가구

1인 가구가 2015년 27.2%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,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.6%를 차지함

-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.5%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27.2%로 주된 가구가 되었고, 2017년에는 28.6%를 차지함
- 일반가구가 2000년 1,431만 가구에서 2017년 1,967만 가구로 37.5% 증가하는 동안,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.6% 증가함
 - 1인 가구변화를 성별로 보면
 - 남자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2017년 279만 가구로 195.4% 증가
 - 여자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.9% 증가

< 표 1 >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2000년 | 2005년 | 2010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일반가구 | 14,312 (100.0) | 15,887 (100.0) | 17,339 (100.0) | 19,111 (100.0) | 19,368 (100.0) | 19,674 (100.0) | |
| 가구원수 | 1인 | 2,224 (15.5) | 3,171 (20.0) | 4,142 (23.9) | 5,203 (27.2) | 5,398 (27.9) | 5,619 (28.6) |
| | 2인 | 2,731 (19.1) | 3,521 (22.2) | 4,205 (24.3) | 4,994 (26.1) | 5,067 (26.2) | 5,260 (26.7) |
| | 3인 | 2,987 (20.9) | 3,325 (20.9) | 3,696 (21.3) | 4,101 (21.5) | 4,152 (21.4) | 4,179 (21.2) |
| | 4인 | 4,447 (31.1) | 4,289 (27.0) | 3,898 (22.5) | 3,589 (18.8) | 3,551 (18.3) | 3,474 (17.7) |
| | 5인 이상 | 1,922 (13.4) | 1,582 (10.0) | 1,398 (8.1) | 1,224 (6.4) | 1,200 (6.2) | 1,142 (5.8) |

* 일반가구 :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,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, 1인 가구,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(제외 : 집단가구, 집단시설가구, 외국인가구(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), 특별조사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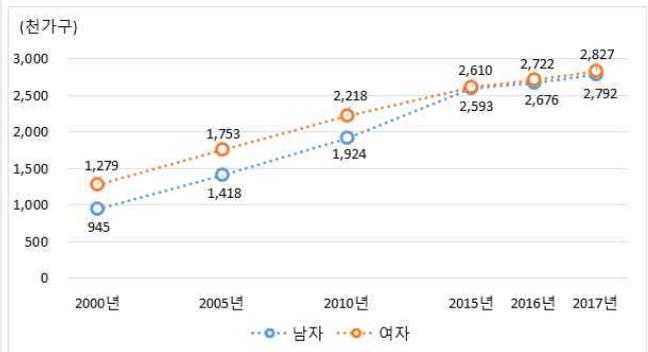
□ 일반가구의 가구원대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

- 2000년 5.0%에서 2017년 11.6%로 6.6%p 증가하였으며,
 - 남자는 2000년 4.3%에서 2017년 11.6%로 7.3%p 증가
 - 여자는 2000년 5.6%에서 2017년 11.5%로 5.9%p 증가

[1인 가구 변화 추이 : 2000-2017년]



[1인 가구 성별 변화 추이 : 2000-2017년]



< 표 2 > 일반가구 가구원 및 1인 가구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(단위 : 천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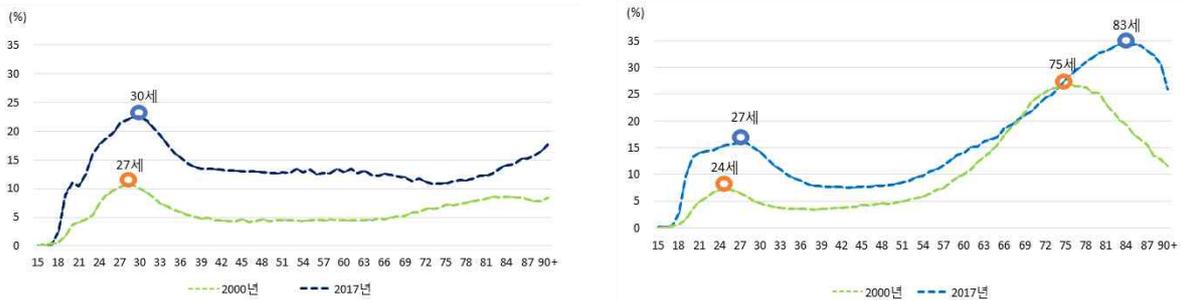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2000년 | 2005년 | 2010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일반가구원(B) | 44,712 | 45,737 | 46,651 | 48,340 | 48,551 | 48,615 |
| 남자 | 22,022 | 22,438 | 22,812 | 23,805 | 23,919 | 23,973 |
| 여자 | 22,690 | 23,299 | 23,839 | 24,535 | 24,633 | 24,642 |
| 1인 가구(A) | 2,224 | 3,171 | 4,142 | 5,203 | 5,398 | 5,619 |
| 남자 | 945 | 1,418 | 1,924 | 2,593 | 2,676 | 2,792 |
| 여자 | 1,279 | 1,753 | 2,218 | 2,610 | 2,722 | 2,827 |
|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 [(A/B)*100] | 5.0 | 6.9 | 8.9 | 10.8 | 11.1 | 11.6 |
| 남자 | 4.3 | 6.3 | 8.4 | 10.9 | 11.2 | 11.6 |
| 여자 | 5.6 | 7.5 | 9.3 | 10.6 | 11.1 | 11.5 |

2. 성별·연령별

2017년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30세, 여자는 27세와 83세로 나타남

-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을 성별·연령별로 살펴보면
 - 남자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17년 30세(22.5%)로 나타나 2000년 대비 3세 높아짐
 - 여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연령은 2017년 27세(16.0%)와 83세(34.4%)로 2000년 대비 각각 3세, 8세가 높아짐

[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의 성별·연령별 비율 : 2000년, 2017년]



< 표 3 > 일반가구원 대비 성별·연령별 1인 가구 비율 (2017년)

(단위 : %)

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0~14세는 0.0 | | | 31세 | 21.7 | 12.9 | 51세 | 12.8 | 8.6 | 71세 | 11.7 | 23.2 |
| | | | 32세 | 20.5 | 11.7 | 52세 | 12.7 | 8.8 | 72세 | 11.2 | 24.3 |
| | | | 33세 | 19.2 | 10.9 | 53세 | 13.5 | 9.5 | 73세 | 10.9 | 24.9 |
| | | | 34세 | 17.7 | 9.9 | 54세 | 12.8 | 9.7 | 74세 | 10.9 | 26.3 |
| 15세 | 0.1 | 0.1 | 35세 | 16.2 | 9.3 | 55세 | 13.4 | 10.6 | 75세 | 10.9 | 27.8 |
| 16세 | 0.2 | 0.2 | 36세 | 15.4 | 8.8 | 56세 | 12.5 | 10.9 | 76세 | 11.3 | 29.0 |
| 17세 | 0.3 | 0.3 | 37세 | 14.4 | 8.1 | 57세 | 12.7 | 11.7 | 77세 | 11.4 | 30.0 |
| 18세 | 2.5 | 2.7 | 38세 | 13.8 | 7.9 | 58세 | 12.7 | 12.6 | 78세 | 11.4 | 31.1 |
| 19세 | 8.9 | 9.7 | 39세 | 13.4 | 7.8 | 59세 | 13.5 | 13.7 | 79세 | 11.7 | 31.9 |
| 20세 | 11.1 | 13.3 | 40세 | 13.4 | 7.6 | 60세 | 12.8 | 14.0 | 80세 | 12.2 | 32.7 |
| 21세 | 10.4 | 14.0 | 41세 | 13.4 | 7.7 | 61세 | 13.5 | 15.1 | 81세 | 12.3 | 33.1 |
| 22세 | 12.5 | 14.4 | 42세 | 13.3 | 7.6 | 62세 | 12.6 | 15.2 | 82세 | 12.7 | 33.9 |
| 23세 | 16.0 | 14.6 | 43세 | 13.1 | 7.5 | 63세 | 13.1 | 16.2 | 83세 | 13.6 | 34.4 |
| 24세 | 17.7 | 15.1 | 44세 | 13.1 | 7.6 | 64세 | 12.3 | 16.6 | 84세 | 14.1 | 34.3 |
| 25세 | 18.7 | 15.5 | 45세 | 13.0 | 7.7 | 65세 | 12.2 | 17.1 | 85세 | 14.3 | 34.4 |
| 26세 | 19.7 | 15.7 | 46세 | 12.9 | 7.7 | 66세 | 12.6 | 18.8 | 86세 | 15.1 | 34.2 |
| 27세 | 21.4 | 16.0 | 47세 | 13.0 | 7.9 | 67세 | 12.4 | 19.3 | 87세 | 15.3 | 33.1 |
| 28세 | 22.0 | 15.8 | 48세 | 12.9 | 7.9 | 68세 | 12.1 | 20.2 | 88세 | 15.8 | 32.3 |
| 29세 | 22.4 | 15.1 | 49세 | 12.7 | 8.0 | 69세 | 12.0 | 21.1 | 89세 | 16.5 | 30.7 |
| 30세 | 22.5 | 14.2 | 50세 | 12.7 | 8.2 | 70세 | 11.3 | 21.9 | 90세 + | 17.8 | 26.0 |

< 표 4 > 일반가구원 대비 성별·연령별 1인 가구 비율 (2000년)

(단위 : %)

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 연령 | 남자 | 여자 |
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0~14세 0.0 | | | 31세 | 8.5 | 3.9 | 51세 | 4.5 | 5.3 | 71세 | 6.5 | 25.5 |
| | | | 32세 | 7.4 | 3.7 | 52세 | 4.4 | 5.5 | 72세 | 6.5 | 26.1 |
| | | | 33세 | 6.9 | 3.6 | 53세 | 4.4 | 5.9 | 73세 | 6.7 | 26.4 |
| | | | 34세 | 6.3 | 3.6 | 54세 | 4.4 | 6.4 | 74세 | 7.2 | 26.6 |
| 15세 | 0.1 | 0.1 | 35세 | 5.9 | 3.5 | 55세 | 4.6 | 7.1 | 75세 | 7.1 | 26.7 |
| 16세 | 0.3 | 0.4 | 36세 | 5.4 | 3.5 | 56세 | 4.4 | 7.5 | 76세 | 7.4 | 26.5 |
| 17세 | 0.6 | 0.6 | 37세 | 5.2 | 3.4 | 57세 | 4.6 | 8.4 | 77세 | 7.5 | 26.3 |
| 18세 | 1.7 | 1.5 | 38세 | 4.8 | 3.5 | 58세 | 4.5 | 9.4 | 78세 | 7.9 | 25.2 |
| 19세 | 3.7 | 3.5 | 39세 | 4.9 | 3.6 | 59세 | 4.5 | 10.1 | 79세 | 8.0 | 25.2 |
| 20세 | 4.1 | 4.9 | 40세 | 4.5 | 3.7 | 60세 | 4.4 | 11.0 | 80세 | 8.3 | 23.1 |
| 21세 | 4.6 | 5.7 | 41세 | 4.5 | 3.8 | 61세 | 4.4 | 12.3 | 81세 | 8.6 | 21.7 |
| 22세 | 5.3 | 6.6 | 42세 | 4.4 | 3.9 | 62세 | 4.5 | 13.3 | 82세 | 8.5 | 20.1 |
| 23세 | 7.5 | 7.1 | 43세 | 4.3 | 4.0 | 63세 | 4.5 | 14.4 | 83세 | 8.6 | 19.2 |
| 24세 | 8.8 | 7.3 | 44세 | 4.6 | 4.2 | 64세 | 4.7 | 15.8 | 84세 | 8.5 | 17.6 |
| 25세 | 9.6 | 7.0 | 45세 | 4.2 | 4.2 | 65세 | 4.7 | 17.5 | 85세 | 8.5 | 16.6 |
| 26세 | 10.3 | 6.5 | 46세 | 4.4 | 4.4 | 66세 | 4.9 | 19.0 | 86세 | 8.2 | 15.5 |
| 27세 | 10.7 | 5.8 | 47세 | 4.7 | 4.6 | 67세 | 5.2 | 20.0 | 87세 | 7.8 | 13.5 |
| 28세 | 10.6 | 5.1 | 48세 | 4.3 | 4.4 | 68세 | 5.2 | 21.6 | 88세 | 7.8 | 12.8 |
| 29세 | 10.0 | 4.5 | 49세 | 4.5 | 4.7 | 69세 | 5.9 | 23.7 | 89세 | 8.4 | 11.6 |
| 30세 | 9.3 | 4.2 | 50세 | 4.5 | 5.0 | 70세 | 5.9 | 24.6 | 90세+ | 7.6 | 8.8 |

□ 1인 가구를 성별·연령대별 구성비로 살펴보면

- 남자는 25~34세 비율이 2000년에는 37.9%에서 2017년 23.8%로 감소하였고,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였음
- 여자는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, 65~74세의 비중은 2000년 23.7%에서 2017년 16.0%로 감소함

[1인 가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 : 2000년, 2017년]

남자



여자



< 표 5 > 1인 가구의 성별·연령대별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합계 | 21세 이하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체 | 2,224 (100.0) | 105 (4.7) | 138 (6.2) | 551 (24.8) | 348 (15.6) | 246 (11.1) | 293 (13.2) | 356 (16.0) | 167 (7.5) | 21 (0.9) |
| | 남 | 945 (100.0) | 43 (4.6) | 67 (7.1) | 358 (37.9) | 199 (21.1) | 117 (12.4) | 81 (8.6) | 53 (5.6) | 24 (2.5) | 4 (0.4) |
| | 여 | 1,279 (100.0) | 61 (4.8) | 71 (5.6) | 193 (15.1) | 149 (11.6) | 129 (10.1) | 212 (16.6) | 303 (23.7) | 143 (11.2) | 17 (1.3) |
| 2005년 | 전체 | 3,171 (100.0) | 111 (3.5) | 201 (6.3) | 774 (24.4) | 502 (15.8) | 427 (13.5) | 372 (11.7) | 472 (14.9) | 274 (8.6) | 36 (1.1) |
| | 남 | 1,418 (100.0) | 45 (3.2) | 96 (6.8) | 484 (34.1) | 310 (21.9) | 223 (15.7) | 127 (9.0) | 88 (6.2) | 39 (2.8) | 6 (0.4) |
| | 여 | 1,753 (100.0) | 66 (3.8) | 105 (6.0) | 290 (16.5) | 192 (11.0) | 204 (11.6) | 245 (14.0) | 384 (21.9) | 235 (13.4) | 30 (1.7) |
| 2010년 | 전체 | 4,142 (100.0) | 123 (3.0) | 197 (4.8) | 918 (22.2) | 678 (16.4) | 638 (15.4) | 522 (12.6) | 573 (13.8) | 419 (10.1) | 74 (1.8) |
| | 남 | 1,924 (100.0) | 50 (2.6) | 102 (5.3) | 554 (28.8) | 432 (22.5) | 356 (18.5) | 214 (11.1) | 138 (7.2) | 66 (3.4) | 13 (0.7) |
| | 여 | 2,218 (100.0) | 74 (3.3) | 95 (4.3) | 364 (16.4) | 246 (11.1) | 282 (12.7) | 308 (13.9) | 435 (19.6) | 354 (16.0) | 61 (2.8) |
| 2015년 | 전체 | 5,203 (100.0) | 158 (3.0) | 268 (5.2) | 1,053 (20.2) | 849 (16.3) | 852 (16.4) | 801 (15.4) | 622 (12.0) | 485 (9.3) | 115 (2.2) |
| | 남 | 2,593 (100.0) | 62 (2.4) | 145 (5.6) | 645 (24.9) | 548 (21.1) | 517 (19.9) | 378 (14.6) | 189 (7.3) | 91 (3.5) | 19 (0.7) |
| | 여 | 2,610 (100.0) | 96 (3.7) | 122 (4.7) | 408 (15.6) | 301 (11.5) | 335 (12.8) | 424 (16.2) | 434 (16.6) | 395 (15.1) | 97 (3.7) |
| 2016년 | 전체 | 5,398 (100.0) | 172 (3.2) | 282 (5.2) | 1,057 (19.6) | 838 (15.5) | 864 (16.0) | 889 (16.5) | 647 (12.0) | 520 (9.6) | 128 (2.4) |
| | 남 | 2,676 (100.0) | 67 (2.5) | 152 (5.7) | 647 (24.2) | 538 (20.1) | 523 (19.5) | 424 (15.8) | 204 (7.6) | 101 (3.8) | 20 (0.7) |
| | 여 | 2,722 (100.0) | 106 (3.9) | 130 (4.8) | 411 (15.1) | 299 (11.0) | 341 (12.5) | 466 (17.1) | 443 (16.3) | 419 (15.4) | 108 (4.0) |
| 2017년 | 전체 | 5,619 (100.0) | 172 (3.1) | 283 (5.0) | 1,085 (19.3) | 859 (15.3) | 890 (15.8) | 959 (17.1) | 673 (12.0) | 560 (10.0) | 138 (2.5) |
| | 남 | 2,792 (100.0) | 65 (2.3) | 147 (5.3) | 665 (23.8) | 551 (19.7) | 542 (19.4) | 465 (16.7) | 221 (7.9) | 112 (4.0) | 23 (0.8) |
| | 여 | 2,827 (100.0) | 107 (3.8) | 135 (4.8) | 421 (14.9) | 308 (10.9) | 348 (12.3) | 494 (17.5) | 452 (16.0) | 447 (15.8) | 115 (4.1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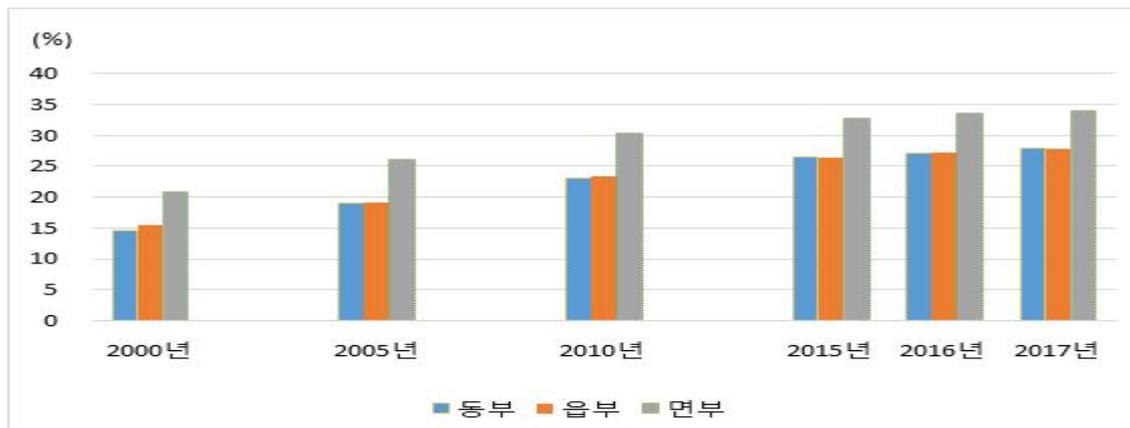
3. 지역별

동지역의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2017년에는 읍지역보다 높아짐

□ 동읍면부별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

- 고령화비율이 높은 면지역에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20.9%에서 2017년 34.0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
- 동지역도 2000년 14.6%에서 2017년 28.0%로 증가하여 읍지역보다 높아짐
 - 동 부 : 14.6%('00년) → 23.1%('10년) → 26.6%('15년) → 28.0%('17년)
 - 읍 부 : 15.5%('00년) → 23.3%('10년) → 26.4%('15년) → 27.8%('17년)
 - 면 부 : 20.9%('00년) → 30.3%('10년) → 32.7%('15년) → 34.0%('17년)

[동읍면부별 1인 가구 비율 변화 추이 : 2000-2017년]



□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비율이 30%이상인 지역은 2015년 강원, 전남, 경북 3개 지역이었으나, 2017년에는 9개 지역(서울, 대전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)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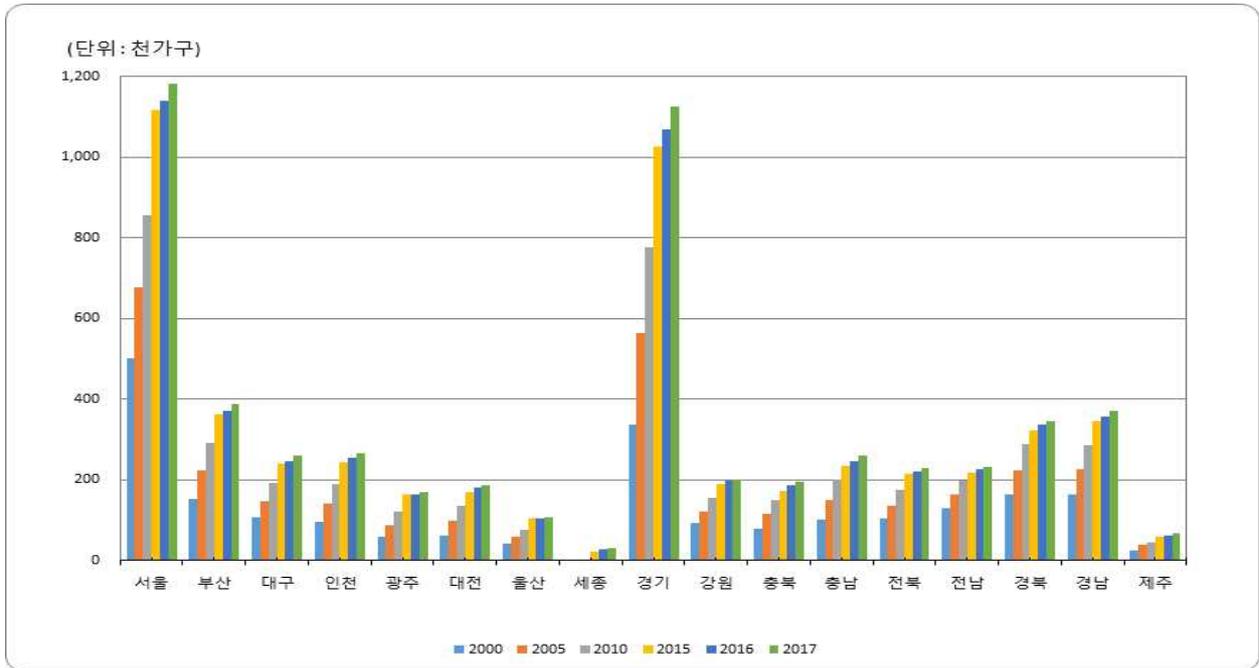
-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2000년 15.2%에서 2017년 31.5%로 16.3%p 증가하였고, 다음은 광주(15.1%p), 부산(14.9%p), 서울(14.7%p)순임
- 2017년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강원(32.2%)이 가장 높고 이어 경북(31.9%), 전남(31.6%)순으로 나타남

< 표 6 > 시도별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5년 | | 2010년 | | 2015년 | | 2016년 | | 2017년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일반 가구 | 1인 가구 |
| 전국 | 14,312 (100.0) | 2,224 (15.5) | 15,887 (100.0) | 3,171 (20.0) | 17,339 (100.0) | 4,142 (23.9) | 19,111 (100.0) | 5,203 (27.2) | 19,368 (100.0) | 5,398 (27.9) | 19,674 (100.0) | 5,619 (28.6) |
| 동부 | 11,229 (100.0) | 1,643 (14.6) | 12,745 (100.0) | 2,440 (19.1) | 14,031 (100.0) | 3,244 (23.1) | 15,488 (100.0) | 4,125 (26.6) | 15,662 (100.0) | 4,263 (27.2) | 15,881 (100.0) | 4,442 (28.0) |
| 읍부 | 1,160 (100.0) | 180 (15.5) | 1,319 (100.0) | 253 (19.2) | 1,487 (100.0) | 347 (23.3) | 1,696 (100.0) | 448 (26.4) | 1,747 (100.0) | 477 (27.3) | 1,799 (100.0) | 499 (27.8) |
| 면부 | 1,922 (100.0) | 401 (20.9) | 1,823 (100.0) | 478 (26.2) | 1,821 (100.0) | 552 (30.3) | 1,928 (100.0) | 630 (32.7) | 1,959 (100.0) | 657 (33.6) | 1,994 (100.0) | 677 (34.0) |
| 서울 | 3,086 (100.0) | 502 (16.3) | 3,310 (100.0) | 676 (20.4) | 3,504 (100.0) | 855 (24.4) | 3,784 (100.0) | 1,116 (29.5) | 3,785 (100.0) | 1,139 (30.1) | 3,813 (100.0) | 1,181 (31.0) |
| 부산 | 1,120 (100.0) | 154 (13.8) | 1,186 (100.0) | 223 (18.8) | 1,244 (100.0) | 291 (23.4) | 1,336 (100.0) | 362 (27.1) | 1,344 (100.0) | 372 (27.7) | 1,354 (100.0) | 389 (28.7) |
| 대구 | 759 (100.0) | 108 (14.2) | 815 (100.0) | 148 (18.2) | 868 (100.0) | 192 (22.1) | 929 (100.0) | 240 (25.8) | 936 (100.0) | 247 (26.4) | 948 (100.0) | 260 (27.4) |
| 인천 | 747 (100.0) | 97 (13.0) | 823 (100.0) | 142 (17.3) | 919 (100.0) | 191 (20.8) | 1,045 (100.0) | 244 (23.3) | 1,063 (100.0) | 254 (23.9) | 1,080 (100.0) | 266 (24.7) |
| 광주 | 409 (100.0) | 60 (14.7) | 460 (100.0) | 87 (18.9) | 516 (100.0) | 123 (23.8) | 567 (100.0) | 164 (28.9) | 569 (100.0) | 165 (29.0) | 576 (100.0) | 171 (29.8) |
| 대전 | 414 (100.0) | 63 (15.2) | 479 (100.0) | 99 (20.7) | 533 (100.0) | 135 (25.3) | 583 (100.0) | 169 (29.0) | 591 (100.0) | 180 (30.4) | 598 (100.0) | 188 (31.5) |
| 울산 | 307 (100.0) | 43 (14.0) | 339 (100.0) | 58 (17.1) | 374 (100.0) | 77 (20.6) | 423 (100.0) | 104 (24.6) | 426 (100.0) | 105 (24.6) | 429 (100.0) | 107 (25.1) |
| 세종 | - (100.0) | - (100.0) | - (100.0) | - (100.0) | - (100.0) | - (100.0) | 75 (100.0) | 22 (29.3) | 90 (100.0) | 28 (30.6) | 104 (100.0) | 31 (30.2) |
| 경기 | 2,669 (100.0) | 338 (12.7) | 3,329 (100.0) | 563 (16.9) | 3,831 (100.0) | 777 (20.3) | 4,385 (100.0) | 1,026 (23.4) | 4,484 (100.0) | 1,068 (23.8) | 4,603 (100.0) | 1,125 (24.4) |
| 강원 | 487 (100.0) | 92 (18.9) | 521 (100.0) | 122 (23.4) | 558 (100.0) | 155 (27.8) | 606 (100.0) | 189 (31.2) | 616 (100.0) | 198 (32.1) | 621 (100.0) | 200 (32.2) |
| 충북 | 461 (100.0) | 79 (17.1) | 505 (100.0) | 115 (22.8) | 559 (100.0) | 150 (26.8) | 602 (100.0) | 174 (28.9) | 618 (100.0) | 187 (30.3) | 629 (100.0) | 195 (31.0) |
| 충남 | 589 (100.0) | 101 (17.1) | 660 (100.0) | 149 (22.6) | 749 (100.0) | 202 (27.0) | 796 (100.0) | 235 (29.5) | 814 (100.0) | 247 (30.4) | 835 (100.0) | 260 (31.1) |
| 전북 | 602 (100.0) | 105 (17.4) | 620 (100.0) | 137 (22.1) | 660 (100.0) | 175 (26.5) | 717 (100.0) | 214 (29.8) | 725 (100.0) | 222 (30.7) | 729 (100.0) | 228 (31.2) |
| 전남 | 664 (100.0) | 131 (19.7) | 666 (100.0) | 164 (24.6) | 681 (100.0) | 197 (28.9) | 721 (100.0) | 219 (30.4) | 727 (100.0) | 227 (31.2) | 734 (100.0) | 232 (31.6) |
| 경북 | 888 (100.0) | 164 (18.5) | 939 (100.0) | 225 (24.0) | 1,005 (100.0) | 290 (28.9) | 1,063 (100.0) | 323 (30.4) | 1,077 (100.0) | 337 (31.3) | 1,088 (100.0) | 347 (31.9) |
| 경남 | 951 (100.0) | 163 (17.1) | 1,056 (100.0) | 226 (21.4) | 1,151 (100.0) | 286 (24.8) | 1,258 (100.0) | 347 (27.6) | 1,274 (100.0) | 358 (28.1) | 1,293 (100.0) | 370 (28.6) |
| 제주 | 158 (100.0) | 26 (16.5) | 179 (100.0) | 39 (21.8) | 187 (100.0) | 45 (24.1) | 220 (100.0) | 58 (26.4) | 229 (100.0) | 63 (27.4) | 240 (100.0) | 69 (28.6) |

[시도별 1인 가구의 분포 : 2000-2017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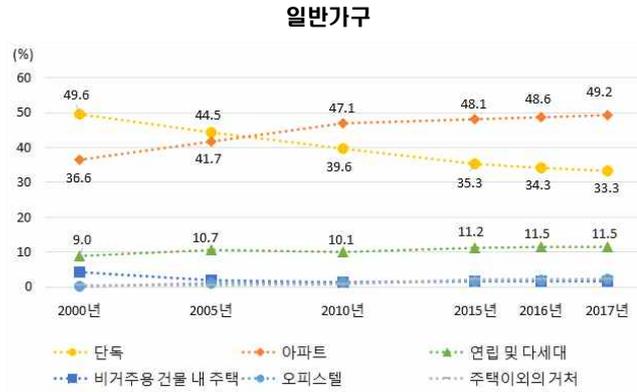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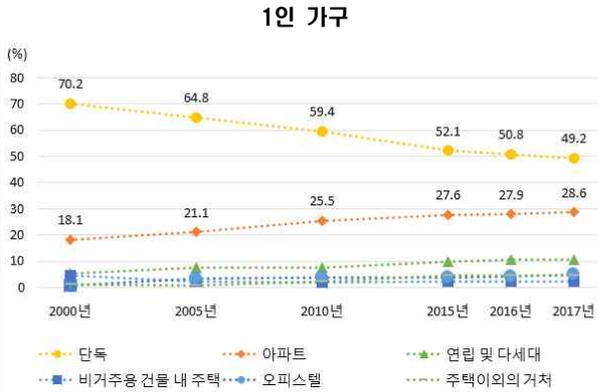


4. 거처의 종류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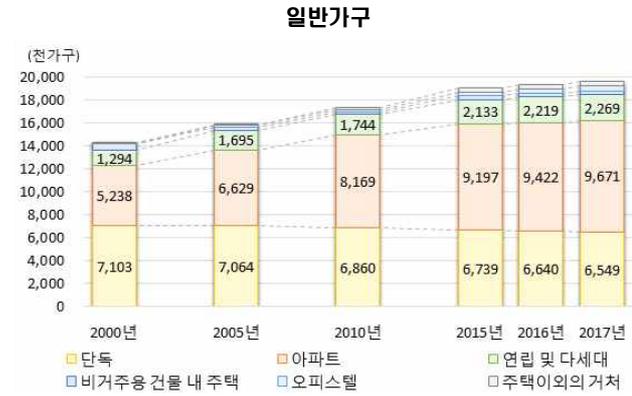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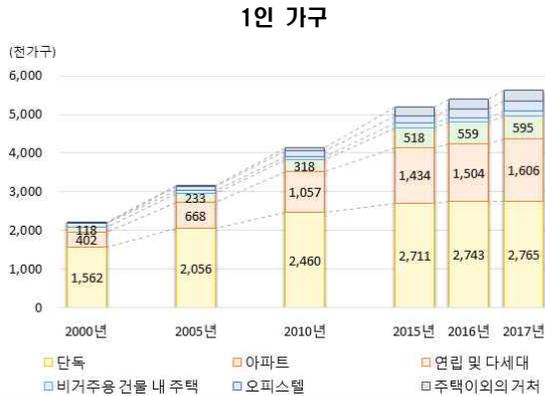
1인 가구의 주된 거처는 「단독주택」이나, 그 거주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, 「아파트」와 「연립·다세대」 거주비율은 지속적 증가

- 2000년에 1인 가구의 70.2%가 「단독주택」에 거주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9.2%로 나타났음
 - 「아파트」 거주비율은 2000년 18.1%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 28.6%로 30%에 근접해졌음
-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면
 - 「단독주택」 거주비율은 2000년 70.2%에서 2017년 49.2%로 21.0%p 감소하여 같은 기간 일반가구 16.3%p 감소보다 감소 폭이 큼
 - 1인 가구 70.2%('00년) → 64.8%('05년) → 59.4%('10년) → 49.2%('17년)
 - 일반 가구 49.6%('00년) → 44.5%('05년) → 39.6%('10년) → 33.3%('17년)
 - 「아파트」 거주비율은 2000년 18.1%에서 2017년 28.6%로 10.5%p 증가하여 일반가구 12.6%p 증가보다는 증가 폭이 작음
 - 1인 가구 18.1%('00년) → 21.1%('05년) → 25.5%('10년) → 28.6%('17년)
 - 일반 가구 36.6%('00년) → 41.7%('05년) → 47.1%('10년) → 49.2%('17년)
 - 「연립 및 다세대주택」 거주비율은 2000년 5.3%에서 2017년 10.6%로 5.3%p 증가하여 일반가구 2.5%p 증가보다 증가 폭이 큼
 - 1인 가구 5.3%('00년) → 7.4%('05년) → 7.7%('10년) → 10.6%('17년)
 - 일반 가구 9.0%('00년) → 10.7%('05년) → 10.1%('10년) → 11.5%('17년)
 - 「오피스텔」 거주비율은 2000년 0.7%에서 2017년 4.8%로 4.1%p 증가하여 일반가구 2.1%p 증가보다 증가 폭이 큼
 - 1인 가구 0.7%('00년) → 3.5%('05년) → 3.7%('10년) → 4.8%('17년)
 - 일반 가구 0.1%('00년) → 1.0%('05년) → 1.3%('10년) → 2.2%('17년)

[거처종류별 비율 : 2000-2017년]



[거처종류별 분포 : 2000-2017년]



< 표 7 >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거처의 종류별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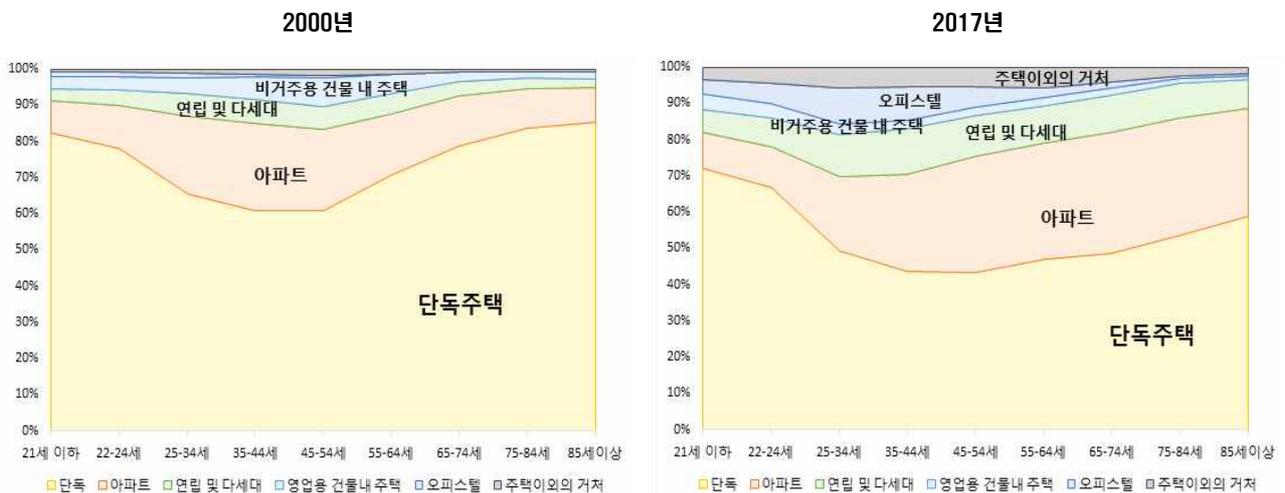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연도 | 전체 | 단독주택 | 아파트 | 연립 및 다세대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오피스텔 | 주택이외의 거처 (오피스텔제외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인 가구 | 2000년 | 2,224 (100.0) | 1,562 (70.2) | 402 (18.1) | 118 (5.3) | 102 (4.6) | 15 (0.7) | 25 (1.1) |
| | 2005년 | 3,171 (100.0) | 2,056 (64.8) | 668 (21.1) | 233 (7.4) | 75 (2.4) | 110 (3.5) | 28 (0.9) |
| | 2010년 | 4,142 (100.0) | 2,460 (59.4) | 1,057 (25.5) | 318 (7.7) | 69 (1.7) | 152 (3.7) | 87 (2.1) |
| | 2015년 | 5,203 (100.0) | 2,711 (52.1) | 1,434 (27.6) | 518 (10.0) | 121 (2.3) | 190 (3.7) | 230 (4.4) |
| | 2016년 | 5,398 (100.0) | 2,743 (50.8) | 1,504 (27.9) | 559 (10.4) | 116 (2.2) | 225 (4.2) | 251 (4.7) |
| | 2017년 | 5,619 (100.0) | 2,765 (49.2) | 1,606 (28.6) | 595 (10.6) | 123 (2.2) | 268 (4.8) | 262 (4.7) |
| 일반 가구 | 2000년 | 14,312 (100.0) | 7,103 (49.6) | 5,238 (36.6) | 1,294 (9.0) | 593 (4.1) | 21 (0.1) | 63 (0.4) |
| | 2005년 | 15,887 (100.0) | 7,064 (44.5) | 6,629 (41.7) | 1,695 (10.7) | 282 (1.8) | 160 (1.0) | 57 (0.4) |
| | 2010년 | 17,339 (100.0) | 6,860 (39.6) | 8,169 (47.1) | 1,744 (10.1) | 212 (1.2) | 225 (1.3) | 129 (0.7) |
| | 2015년 | 19,111 (100.0) | 6,739 (35.3) | 9,197 (48.1) | 2,133 (11.2) | 328 (1.7) | 320 (1.7) | 394 (2.1) |
| | 2016년 | 19,368 (100.0) | 6,640 (34.3) | 9,422 (48.6) | 2,219 (11.5) | 316 (1.6) | 367 (1.9) | 403 (2.1) |
| | 2017년 | 19,674 (100.0) | 6,549 (33.3) | 9,671 (49.2) | 2,269 (11.5) | 327 (1.7) | 428 (2.2) | 430 (2.2) |

「아파트」 거주 비율이 2000년은 25~54세 연령대에서만 20%이상 이었으나,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세 이상 전체 연령대로 넓어짐

- 2000년 「단독주택」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60%이상이었으나, 2015년 35~64세 연령대가 50%이하로 나타나고,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50%이하인 연령대가 25~74세로 확대됨
- 1인 가구의 거처종류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
 - (단독주택)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, 특히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20.0%p 이상 감소함
 - 2000년 55~64세(70.7%), 65~74세(78.6%), 75~84세(83.8%), 85세 이상(85.4%)
 - 2017년 55~64세(46.9%), 65~74세(48.7%), 75~84세(53.6%), 85세 이상(58.9%)
 - (아파트) 22~24세에서 0.6%p, 25~34세에서 1.2%p 감소한 것 외에는 다른 연령대는 증가하였는데,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15.0%p이상 증가함
 - 2000년 55~64세(16.9%), 65~74세(14.1%), 75~84세(10.8%), 85세 이상(9.3%)
 - 2017년 55~64세(32.1%), 65~74세(33.3%), 75~84세(32.3%), 85세 이상(29.7%)
 - (연립·다세대) 2000년 대비 2015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3.0~6.8%p 증가함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거처종류별 비율 : 2000년, 2017년]



< 표 8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거처 종류별 변화 추이 (2000-2017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1인 가구 | 21세 이하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2,224 (100.0) | 105 (100.0) | 138 (100.0) | 551 (100.0) | 348 (100.0) | 246 (100.0) | 293 (100.0) | 356 (100.0) | 167 (100.0) | 21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70.2) | (82.3) | (78.0) | (65.5) | (60.9) | (61.0) | (70.7) | (78.6) | (83.8) | (85.4) |
| | 아파트 | (18.1) | (8.9) | (11.9) | (21.6) | (24.0) | (22.4) | (16.9) | (14.1) | (10.8) | (9.3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5.3) | (3.3) | (4.3) | (6.2) | (6.6) | (6.5) | (5.6) | (3.8) | (2.8) | (2.5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4.6) | (3.5) | (3.7) | (4.4) | (6.2) | (7.8) | (5.2) | (2.7) | (1.9) | (1.8) |
| | 오피스텔 | (0.7) | (1.1) | (1.2) | (1.4) | (0.9) | (0.5) | (0.1) | (0.0) | (0.0) | (0.1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1.1) | (0.9) | (0.9) | (1.0) | (1.4) | (1.9) | (1.4) | (0.7) | (0.7) | (0.8) |
| 2005년 | 전 체 | 3,171 (100.0) | 111 (100.0) | 201 (100.0) | 774 (100.0) | 502 (100.0) | 427 (100.0) | 372 (100.0) | 472 (100.0) | 274 (100.0) | 36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64.8) | (77.9) | (73.7) | (60.2) | (56.8) | (58.7) | (63.3) | (72.1) | (77.8) | (81.9) |
| | 아파트 | (21.1) | (7.8) | (10.2) | (21.0) | (26.6) | (26.3) | (23.8) | (19.6) | (16.3) | (13.0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7.4) | (5.0) | (6.4) | (8.5) | (8.6) | (8.0) | (8.1) | (6.0) | (4.2) | (3.5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2.4) | (2.7) | (2.3) | (2.2) | (2.8) | (3.6) | (2.9) | (1.4) | (0.9) | (0.8) |
| | 오피스텔 | (3.5) | (5.7) | (6.6) | (7.4) | (4.2) | (2.0) | (0.6) | (0.2) | (0.2) | (0.2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0.9) | (0.9) | (0.8) | (0.7) | (1.0) | (1.4) | (1.3) | (0.7) | (0.5) | (0.7) |
| 2010년 | 전 체 | 4,142 (100.0) | 123 (100.0) | 197 (100.0) | 918 (100.0) | 678 (100.0) | 638 (100.0) | 522 (100.0) | 573 (100.0) | 419 (100.0) | 74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59.4) | (76.0) | (72.9) | (57.1) | (50.6) | (54.6) | (55.7) | (63.5) | (70.8) | (75.5) |
| | 아파트 | (25.5) | (6.9) | (9.0) | (22.2) | (31.5) | (30.5) | (30.9) | (26.3) | (22.2) | (18.4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7.7) | (4.1) | (4.9) | (8.0) | (8.9) | (8.3) | (8.9) | (7.8) | (5.4) | (4.3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1.7) | (2.0) | (1.8) | (1.7) | (1.7) | (2.2) | (2.1) | (1.3) | (0.8) | (0.8) |
| | 오피스텔 | (3.7) | (4.9) | (6.4) | (8.1) | (5.4) | (2.4) | (0.9) | (0.3) | (0.3) | (0.3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2.1) | (6.1) | (5.0) | (3.0) | (1.9) | (2.0) | (1.6) | (0.9) | (0.6) | (0.7) |
| 2015년 | 전 체 | 5,203 (100.0) | 158 (100.0) | 425 (100.0) | 1,321 (100.0) | 1,902 (100.0) | 1,701 (100.0) | 1,653 (100.0) | 1,424 (100.0) | 1,108 (100.0) | 601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52.1) | (72.0) | (67.9) | (52.1) | (46.8) | (47.0) | (49.9) | (51.7) | (57.0) | (62.1) |
| | 아파트 | (27.6) | (10.8) | (11.7) | (20.8) | (27.0) | (30.9) | (30.8) | (31.8) | (30.0) | (27.3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10.0) | (7.0) | (8.3) | (11.3) | (11.6) | (10.4) | (9.6) | (9.7) | (8.7) | (7.1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2.3) | (3.8) | (3.8) | (3.1) | (2.7) | (2.4) | (2.3) | (1.9) | (1.3) | (1.0) |
| | 오피스텔 | (3.7) | (3.0) | (4.1) | (7.1) | (6.8) | (4.2) | (2.2) | (1.1) | (0.7) | (0.6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4.4) | (3.3) | (4.3) | (5.5) | (5.2) | (5.1) | (5.1) | (3.7) | (2.2) | (1.9) |
| 2016년 | 전 체 | 5,398 (100.0) | 172 (100.0) | 454 (100.0) | 1,339 (100.0) | 1,895 (100.0) | 1,702 (100.0) | 1,754 (100.0) | 1,536 (100.0) | 1,167 (100.0) | 648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50.8) | (73.4) | (68.7) | (51.1) | (45.2) | (45.3) | (48.3) | (50.2) | (55.4) | (60.3) |
| | 아파트 | (27.9) | (9.5) | (10.9) | (20.6) | (26.9) | (31.1) | (31.4) | (32.5) | (31.0) | (28.2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10.4) | (6.2) | (7.7) | (11.5) | (12.1) | (11.1) | (10.2) | (10.2) | (9.3) | (7.6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2.2) | (4.1) | (3.8) | (3.0) | (2.5) | (2.1) | (2.1) | (1.8) | (1.2) | (1.0) |
| | 오피스텔 | (4.2) | (3.1) | (4.6) | (8.4) | (8.0) | (4.9) | (2.5) | (1.3) | (0.7) | (0.6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4.7) | (3.7) | (4.3) | (5.5) | (5.4) | (5.5) | (5.5) | (4.0) | (2.3) | (2.2) |
| 2017년 | 전 체 | 5,619 (100.0) | 172 (100.0) | 455 (100.0) | 1,368 (100.0) | 1,945 (100.0) | 1,749 (100.0) | 1,849 (100.0) | 1,632 (100.0) | 1,233 (100.0) | 698 (100.0) |
| | 단독주택 | (49.2) | (72.0) | (66.8) | (49.3) | (43.6) | (43.5) | (46.9) | (48.7) | (53.6) | (58.9) |
| | 아파트 | (28.6) | (10.2) | (11.3) | (20.4) | (27.0) | (32.0) | (32.1) | (33.3) | (32.3) | (29.7) |
| | 연립 및 다세대 | (10.6) | (6.3) | (7.9) | (11.7) | (12.3) | (11.3) | (10.4) | (10.4) | (9.6) | (8.0) |
| |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| (2.2) | (4.2) | (4.0) | (3.0) | (2.5) | (2.1) | (2.1) | (1.8) | (1.3) | (1.0) |
| | 오피스텔 | (4.8) | (3.9) | (5.6) | (9.7) | (9.2) | (5.6) | (2.8) | (1.5) | (0.9) | (0.7) |
| | 주택이외 거처 (오피스텔 제외) | (4.7) | (3.5) | (4.4) | (5.8) | (5.5) | (5.5) | (5.6) | (4.2) | (2.3) | (1.7) |

II. 1인 가구 변화 (표본부문 '00년~'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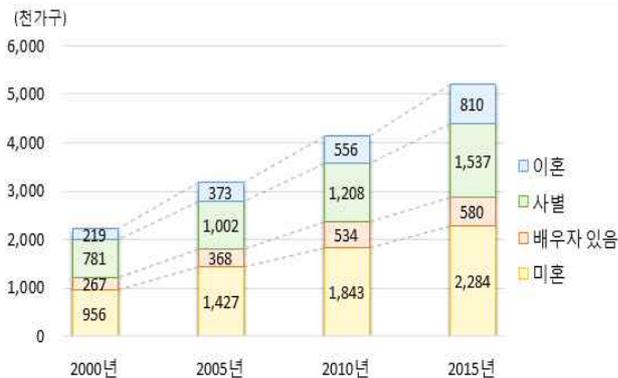
1. 혼인 상태별

1인 가구의 「사별」 비율은 감소하고, 「이혼」 비율은 계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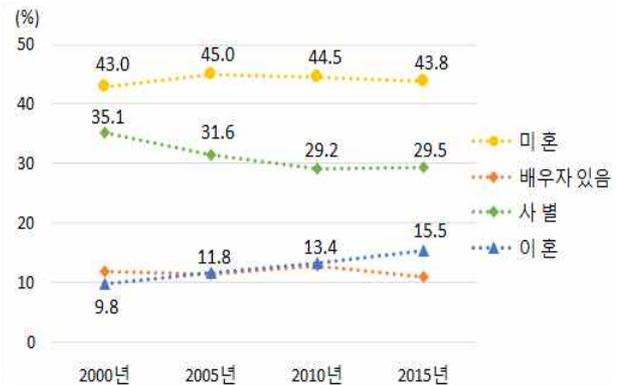
□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살펴보면

- 「미혼」은 1인 가구의 주된 혼인 상태로 2000년 43.0%에서 2015년 43.8%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
- 「이혼」은 2000년 9.8%에서 2015년 15.5%로 5.7%p 증가
- 「사별」은 2000년 35.1%에서 2015년 29.5%로 5.6%p 감소
- 「배우자 있음」은 2000년 12.0%에서 2015년 11.1%로 0.9%p 감소

[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: 2000-2015년]



[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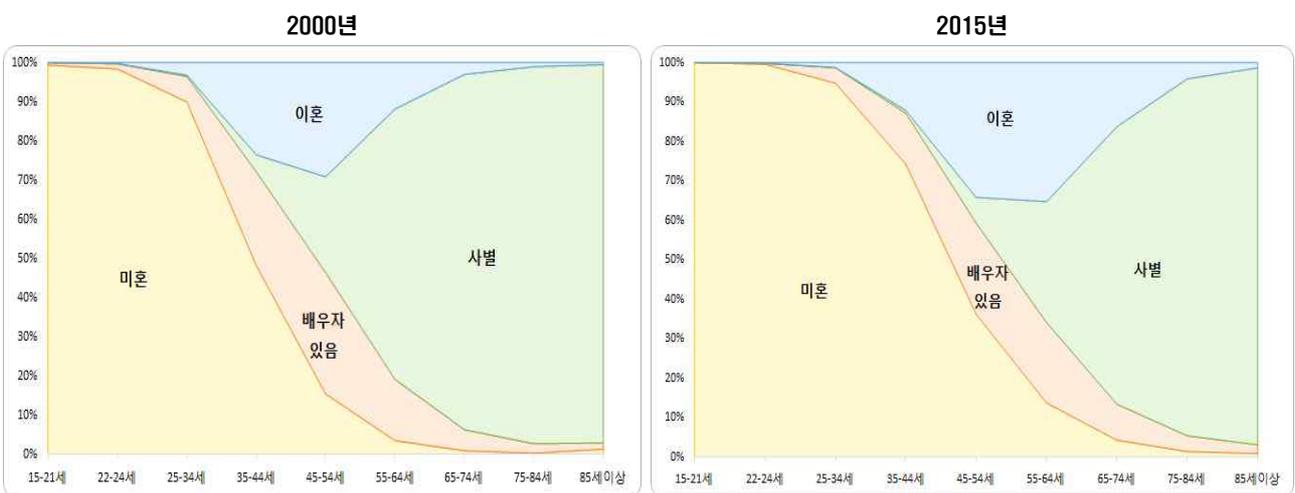
□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혼인상태 변화를 살펴보면

- (미혼)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미혼 비중은 43~45%를 유지하고 있으나,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됨
 - 2000년에 44세 이하에서 주된 혼인상태가 미혼이었으나, 2015년에는 54세 이하에서 주된 혼인상태로 나타남
 - 2000년 25~34세(90.0%), 35~44세(48.3%), 45~54세(15.5%)
 - 2015년 25~34세(94.7%), 35~44세(74.4%), 45~54세(36.3%)

- (사별) 2000년 이후 1인 가구 중 사별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고, 연령대도 축소됨
 - 2000년에는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별이 주된 혼인상태였으나,
 -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별 비율이 70%이상으로 나타남
 - 2000년 45~54세(24.4%), 55~64세(68.9%), 65~74세(90.6%), 75~84세(96.1%)
 - 2015년 45~54세(6.5%), 55~64세(30.6%), 65~74세(70.2%), 75~84세(90.3%)

- (이혼) 2000년 이후 1인 가구에서 이혼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, 45세 이상에서 이혼의 비율이 증가함
 - 2000년은 35~64세 연령대에서 이혼비율이 높고, 특히 45~54세의 이혼 비율이 29.1%로 가장 높았으나
 - 2015년에는 4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비율이 증가하였고, 특히 55~64세의 이혼비율이 35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- 2000년 35~44세(23.5%), 45~54세(29.1%), 55~64세(11.8%), 65~74세(3.0%)
 - 2015년 35~44세(12.1%), 45~54세(34.1%), 55~64세(35.2%), 65~74세(16.2%)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비율]



< 표 9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2,223 (100.0) | 104 (100.0) | 138 (100.0) | 551 (100.0) | 347 (100.0) | 246 (100.0) | 293 (100.0) | 356 (100.0) | 167 (100.0) | 20 (100.0) |
| | 미 혼 | (43.0) | (99.3) | (98.5) | (90.0) | (48.3) | (15.5) | (3.6) | (1.0) | (0.4) | (1.4) |
| | 배우자 있음 | (12.0) | (0.6) | (1.3) | (6.5) | (23.9) | (31.0) | (15.6) | (5.4) | (2.4) | (1.6) |
| | 사 별 | (35.1) | (0.0) | (0.1) | (0.3) | (4.3) | (24.4) | (68.9) | (90.6) | (96.1) | (96.5) |
| | 이 혼 | (9.8) | (0.0) | (0.2) | (3.2) | (23.5) | (29.1) | (11.8) | (3.0) | (1.0) | (0.5) |
| 2005년 | 전 체 | 3,170 (100.0) | 110 (100.0) | 201 (100.0) | 774 (100.0) | 502 (100.0) | 427 (100.0) | 372 (100.0) | 472 (100.0) | 274 (100.0) | 36 (100.0) |
| | 미 혼 | (45.0) | (99.7) | (99.3) | (92.6) | (57.1) | (19.7) | (5.5) | (1.4) | (0.6) | (0.5) |
| | 배우자 있음 | (11.6) | (0.2) | (0.6) | (4.9) | (19.2) | (29.7) | (18.3) | (6.5) | (2.4) | (1.3) |
| | 사 별 | (31.6) | (0.0) | (0.0) | (0.1) | (2.2) | (15.7) | (57.1) | (87.4) | (95.8) | (97.7) |
| | 이 혼 | (11.8) | (0.1) | (0.1) | (2.4) | (21.6) | (35.0) | (19.1) | (4.7) | (1.2) | (0.5) |
| 2010년 | 전 체 | 4,142 (100.0) | 123 (100.0) | 197 (100.0) | 918 (100.0) | 678 (100.0) | 638 (100.0) | 522 (100.0) | 573 (100.0) | 419 (100.0) | 74 (100.0) |
| | 미 혼 | (44.5) | (99.8) | (99.4) | (93.5) | (65.8) | (25.0) | (8.4) | (2.2) | (0.8) | (0.6) |
| | 배우자 있음 | (12.9) | (0.2) | (0.4) | (4.8) | (16.2) | (28.2) | (22.5) | (10.4) | (4.6) | (3.6) |
| | 사 별 | (29.2) | (0.0) | (0.0) | (0.1) | (1.1) | (10.6) | (42.3) | (79.0) | (92.7) | (95.2) |
| | 이 혼 | (13.4) | (0.0) | (0.1) | (1.6) | (16.8) | (36.1) | (26.9) | (8.4) | (1.9) | (0.6) |
| 2015년 | 전 체 | 5,211 (100.0) | 162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미 혼 | (43.8) | (99.9) | (99.6) | (94.7) | (74.4) | (36.3) | (13.8) | (4.4) | (1.5) | (1.0) |
| | 배우자 있음 | (11.1) | (0.0) | (0.2) | (3.9) | (12.9) | (23.1) | (20.4) | (9.1) | (4.0) | (2.2) |
| | 사 별 | (29.5) | (0.0) | (0.1) | (0.1) | (0.7) | (6.5) | (30.6) | (70.2) | (90.3) | (95.5) |
| | 이 혼 | (15.5) | (0.0) | (0.1) | (1.2) | (12.1) | (34.1) | (35.2) | (16.2) | (4.1) | (1.3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2. 교육정도별

2005년 「대학 이상」이 32.8%로 주된 교육정도가 되었고,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38.5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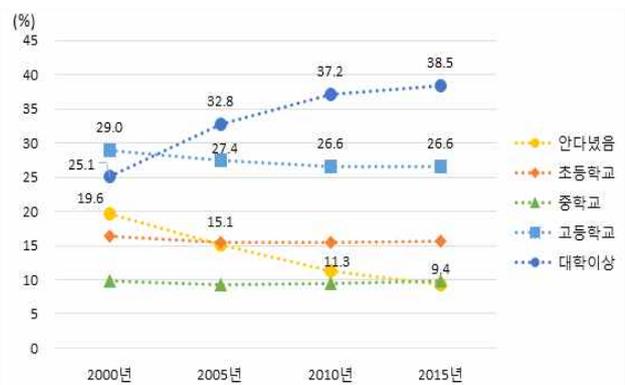
□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교육정도 변화를 보면

- 「대학이상」 비율은 2000년 25.1%로 고등학교(29.0%)보다 낮았으나, 2005년 32.8%로 고등학교(27.4%)보다 높아 주된 교육정도가 되었음
- 「안다녔음」은 2000년 19.6%에서 2015년 9.4%로 10.2%p 감소
- 「고등학교」는 2000년 29.0%에서 2015년 26.6%로 2.4%p 감소
- 「초등학교」, 「중학교」는 각각 15%, 9%정도를 유지하고 있음

[1인 가구의 교육정도별 분포: 2000-2015년]



[1인 가구의 교육정도별 비율 : 2000-2015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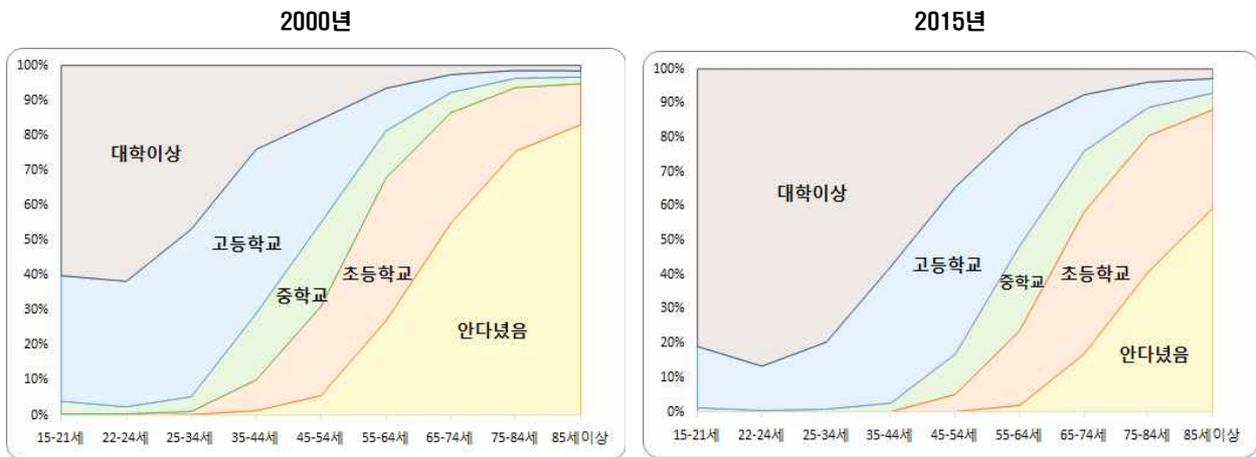


□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교육정도의 변화를 보면

- (대학이상) 2000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2000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60%이상이 대학이상이었으나,
 - 2015년에는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80%정도가 대학이상으로 나타나고,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하였음
- 2000년 15~21세(60.1%), 22~24세(61.7%), 25~34세(46.8%)
- 2015년 15~21세(80.8%), 22~24세(86.5%), 25~34세(79.7%)

- (안다녔음) 1인 가구의 모든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는데,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그 감소 폭이 큼
 -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된 교육정도로 나타났으나,
 - 2015년에는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만 주된 교육정도로 나타남
 - 2000년 65~74세(54.9%), 75~84세(75.5%), 85세 이상(83.0%)
 - 2015년 65~74세(16.9%), 75~84세(40.9%), 85세 이상(59.4%)
- 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) 각 교육정도의 비율이 커다란 변화 없이 연령대만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비율 : 2000년, 2015년]



< 표 10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2,223 (100.0) | 104 (100.0) | 138 (100.0) | 551 (100.0) | 347 (100.0) | 246 (100.0) | 293 (100.0) | 356 (100.0) | 167 (100.0) | 20 (100.0) |
| | 안다녔음 | (19.6) | (0.1) | (0.1) | (0.2) | (1.3) | (5.6) | (27.0) | (54.9) | (75.5) | (83.0) |
| | 초등학교 | (16.4) | (0.3) | (0.3) | (0.9) | (8.8) | (25.5) | (40.9) | (31.6) | (18.2) | (11.7) |
| | 중학교 | (9.9) | (3.6) | (2.0) | (4.2) | (19.0) | (24.0) | (13.5) | (5.8) | (2.7) | (1.9) |
| | 고등학교 | (29.0) | (35.9) | (35.9) | (47.9) | (46.9) | (29.5) | (12.2) | (5.1) | (2.2) | (1.8) |
| | 대학이상 | (25.1) | (60.1) | (61.7) | (46.8) | (24.0) | (15.3) | (6.5) | (2.6) | (1.4) | (1.5) |
| 2005년 | 전 체 | 3,170 (100.0) | 110 (100.0) | 201 (100.0) | 774 (100.0) | 502 (100.0) | 427 (100.0) | 372 (100.0) | 472 (100.0) | 274 (100.0) | 36 (100.0) |
| | 안다녔음 | (15.1) | (0.1) | (0.1) | (0.2) | (0.7) | (3.0) | (15.4) | (41.6) | (64.9) | (78.0) |
| | 초등학교 | (15.4) | (0.2) | (0.2) | (0.3) | (3.6) | (16.5) | (37.9) | (38.3) | (25.6) | (15.8) |
| | 중학교 | (9.2) | (1.9) | (1.2) | (1.8) | (10.3) | (23.3) | (19.0) | (8.6) | (4.1) | (2.4) |
| | 고등학교 | (27.4) | (24.2) | (24.1) | (34.5) | (50.2) | (37.3) | (18.5) | (7.8) | (3.5) | (2.2) |
| | 대학이상 | (32.8) | (73.6) | (74.4) | (63.2) | (35.2) | (19.9) | (9.2) | (3.8) | (1.9) | (1.6) |
| 2010년 | 전 체 | 4,142 (100.0) | 123 (100.0) | 197 (100.0) | 918 (100.0) | 678 (100.0) | 638 (100.0) | 522 (100.0) | 573 (100.0) | 419 (100.0) | 74 (100.0) |
| | 안다녔음 | (11.3) | (0.1) | (0.1) | (0.1) | (0.3) | (1.5) | (6.5) | (27.9) | (50.7) | (66.5) |
| | 초등학교 | (15.4) | (0.1) | (0.1) | (0.2) | (1.1) | (10.3) | (31.0) | (42.3) | (34.1) | (23.9) |
| | 중학교 | (9.5) | (1.5) | (0.6) | (1.1) | (4.8) | (19.0) | (23.7) | (12.9) | (6.4) | (3.8) |
| | 고등학교 | (26.6) | (18.0) | (14.4) | (24.5) | (47.0) | (43.4) | (26.4) | (11.4) | (5.8) | (3.4) |
| | 대학이상 | (37.2) | (80.4) | (84.9) | (74.2) | (46.7) | (25.7) | (12.5) | (5.5) | (3.0) | (2.4) |
| 2015년 | 전 체 | 5,211 (100.0) | 162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안다녔음 | (9.4) | (0.0) | (0.0) | (0.0) | (0.0) | (0.2) | (2.0) | (16.9) | (40.9) | (59.4) |
| | 초등학교 | (15.7) | (0.0) | (0.0) | (0.0) | (0.1) | (5.0) | (21.8) | (41.5) | (39.7) | (28.6) |
| | 중학교 | (9.9) | (1.1) | (0.4) | (0.7) | (2.6) | (11.7) | (24.7) | (17.7) | (8.3) | (5.1) |
| | 고등학교 | (26.6) | (18.1) | (13.0) | (19.5) | (39.7) | (48.8) | (34.8) | (16.4) | (7.4) | (4.4) |
| | 대학이상 | (38.5) | (80.8) | (86.5) | (79.7) | (57.6) | (34.4) | (16.7) | (7.4) | (3.7) | (2.6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** 재학, 수료, 휴학, 중퇴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(예, 중학교 재학→중학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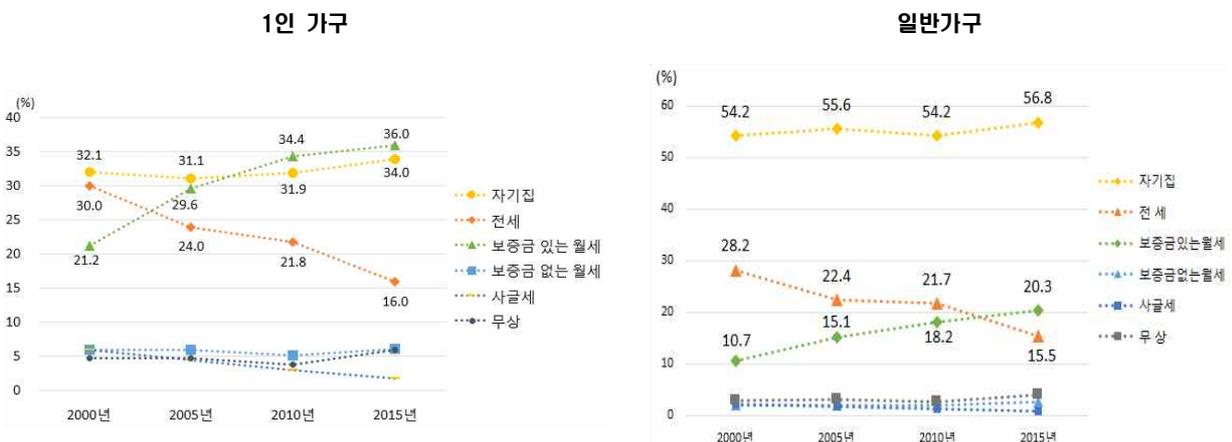
3. 점유형태별

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5년에는 「자기 집」이었으나, 2010년 이후에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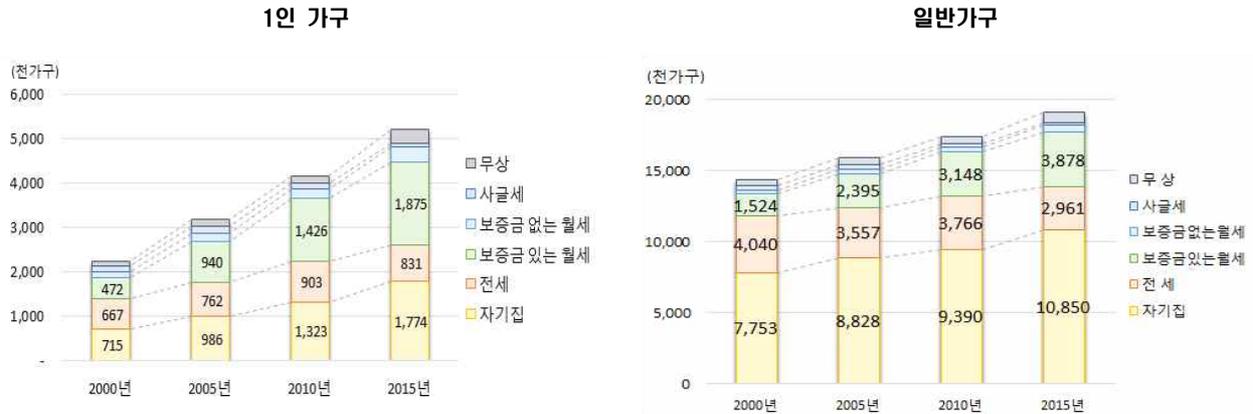
□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면

- 「자기 집」인 비율은 1인가구는 30% 이상, 일반가구는 55%내외를 유지함
 - 1인 가구 32.1%('00년) → 31.1%('05년) → 31.9%('10년) → 34.0%('15년)
 - 일반가구 54.2%('00년) → 55.6%('05년) → 54.2%('10년) → 56.8%('15년)
- 「전세」는 2000년 30.0%에서 2015년 16.0%로 14.0%p 감소, 같은 기간 12.7%p 감소한 일반가구보다 감소폭이 큼
 - 1인 가구 30.0%('00년) → 24.0%('05년) → 21.8%('10년) → 16.0%('15년)
 - 일반가구 28.2%('00년) → 22.4%('05년) → 21.7%('10년) → 15.5%('15년)
-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는 2000년 21.2%에서 2015년 36.0%로 14.8%p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9.6%p 증가한 일반가구보다 증가폭이 큼
 - 1인 가구 21.2%('00년) → 29.6%('05년) → 34.4%('10년) → 36.0%('15년)
 - 일반가구 10.7%('00년) → 15.1%('05년) → 18.2%('10년) → 20.3%('15년)

[점유형태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[점유형태별 분포 : 2000-2015년]



< 표 11 >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전체 | 자기 집 | 전세 | 보증금 있는 월세 | 보증금 없는 월세 | 사글세 | 무상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2000년 | 2,223 (100.0) | 715 (32.1) | 667 (30.0) | 472 (21.2) | 133 (6.0) | 133 (6.0) | 104 (4.7) |
| | 2005년 | 3,170 (100.0) | 986 (31.1) | 762 (24.0) | 940 (29.6) | 189 (6.0) | 141 (4.4) | 153 (4.8) |
| | 2010년 | 4,142 (100.0) | 1,323 (31.9) | 903 (21.8) | 1,426 (34.4) | 210 (5.1) | 124 (3.0) | 157 (3.8) |
| | 2015년 | 5,211 (100.0) | 1,774 (34.0) | 831 (16.0) | 1,875 (36.0) | 320 (6.1) | 96 (1.8) | 315 (6.0) |
| 일반 가구 | 2000년 | 14,311 (100.0) | 7,753 (54.2) | 4,040 (28.2) | 1,524 (10.7) | 279 (2.0) | 310 (2.2) | 406 (2.8) |
| | 2005년 | 15,887 (100.0) | 8,828 (55.6) | 3,557 (22.4) | 2,395 (15.1) | 333 (2.1) | 284 (1.8) | 490 (3.1) |
| | 2010년 | 17,339 (100.0) | 9,390 (54.2) | 3,766 (21.7) | 3,148 (18.2) | 342 (2.0) | 230 (1.3) | 464 (2.7) |
| | 2015년 | 19,112 (100.0) | 10,850 (56.8) | 2,961 (15.5) | 3,878 (20.3) | 490 (2.6) | 161 (0.8) | 773 (4.0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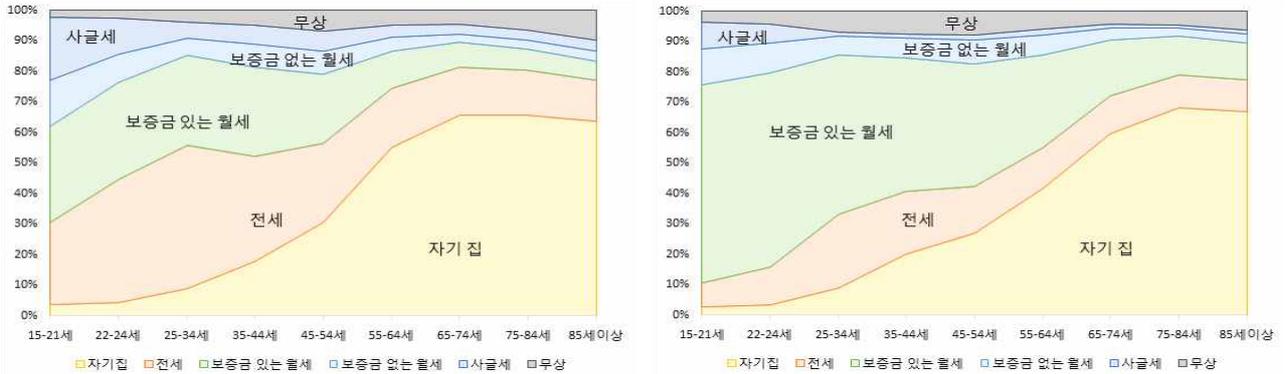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2000년 22~44세 연령대에서 「전세」가 주된 점유형태였으나, 2005년에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로 변화

□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살펴보면

- (자기 집) 2000년에 비해 2015년 「자기 집」 거주비율이 75세 이상에서 소폭 증가하였고, 45~74세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는데, 특히 55~64세에서 13.4%p 감소함
 - 2000년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로 50% 이상을 차지
 - 2010년 이후 연령층이 상향 이동하여 65세 이상에서 50% 이상을 차지
 - 2000년 55~64세(55.3%), 65~74세(65.5%), 75~84세(65.6%)
 - 2015년 55~64세(41.9%), 65~74세(59.8%), 75~84세(68.1%)
- (전세) 2000년 대비하여 2015년 「전세」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고, 특히 22~34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큼
 - 2000년 22~34세에서는 40% 이상, 35~44세는 34.5%를 차지하여 해당 연령대의 주된 점유형태였으나,
 -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5~44세 연령대에서만 20%대를 유지함
 - 2000년 22~24세(40.5%), 25~34세(46.9%), 35~44세(34.5%)
 - 2015년 22~24세(12.6%), 25~34세(24.2%), 35~44세(20.8%)
- (보증금 있는 월세) 2005년에 54세 이하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4세 이하에서는 50%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
 - 2000년에는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20%이상을 보였으며, 특히 22~24세가 31.8%로 가장 높았으나,
 -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2015년에는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%이상으로 나타나고, 35~54세 연령대에서도 40%이상으로 나타남
 - 2000년 15~21세(31.5%), 22~24세(31.8%), 25~34세(29.3%)
 - 2015년 15~21세(65.2%), 22~24세(63.8%), 25~34세(52.2%)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: 2000년, 2015년]
2000년 2015년



< 표 12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2,223 (100.0) | 104 (100.0) | 138 (100.0) | 551 (100.0) | 347 (100.0) | 246 (100.0) | 293 (100.0) | 356 (100.0) | 167 (100.0) | 21 (100.0) |
| | 자기 집 | (32.1) | (3.6) | (4.3) | (9.1) | (17.7) | (30.7) | (55.3) | (65.5) | (65.6) | (63.6) |
| | 전 세 | (30.0) | (27.1) | (40.5) | (46.9) | (34.5) | (25.9) | (19.1) | (16.0) | (15.0) | (13.7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21.2) | (31.5) | (31.8) | (29.3) | (29.1) | (22.4) | (12.4) | (8.0) | (6.7) | (6.1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6.0) | (14.9) | (9.0) | (5.7) | (7.5) | (7.8) | (4.4) | (2.8) | (2.9) | (3.2) |
| | 사글세 | (6.0) | (20.5) | (11.9) | (5.2) | (6.4) | (6.3) | (4.1) | (3.1) | (3.2) | (3.7) |
| | 무 상 | (4.7) | (2.4) | (2.5) | (3.9) | (4.8) | (7.0) | (4.7) | (4.7) | (6.6) | (9.7) |
| 2005년 | 전 체 | 3,170 (100.0) | 110 (100.0) | 201 (100.0) | 774 (100.0) | 502 (100.0) | 427 (100.0) | 372 (100.0) | 472 (100.0) | 274 (100.0) | 36 (100.0) |
| | 자기 집 | (31.1) | (3.3) | (4.5) | (9.7) | (18.0) | (27.8) | (50.2) | (64.0) | (64.5) | (63.3) |
| | 전 세 | (24.0) | (17.2) | (25.9) | (35.5) | (28.2) | (21.7) | (17.5) | (15.2) | (14.8) | (13.0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29.6) | (48.3) | (48.0) | (41.7) | (37.8) | (30.8) | (18.2) | (10.5) | (9.0) | (8.3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6.0) | (13.4) | (9.0) | (5.7) | (7.2) | (8.2) | (5.2) | (2.9) | (2.5) | (2.7) |
| | 사글세 | (4.4) | (15.6) | (9.9) | (3.4) | (4.1) | (5.1) | (3.8) | (2.6) | (2.7) | (3.0) |
| | 무 상 | (4.8) | (2.2) | (2.7) | (4.0) | (4.7) | (6.4) | (5.0) | (4.8) | (6.5) | (9.5) |
| 2010년 | 전 체 | 4,142 (100.0) | 123 (100.0) | 197 (100.0) | 918 (100.0) | 678 (100.0) | 638 (100.0) | 522 (100.0) | 573 (100.0) | 419 (100.0) | 74 (100.0) |
| | 자기 집 | (31.9) | (3.2) | (3.7) | (10.2) | (19.3) | (27.2) | (45.5) | (61.8) | (65.6) | (64.1) |
| | 전 세 | (21.8) | (11.4) | (17.2) | (30.4) | (26.9) | (21.1) | (18.0) | (15.9) | (15.1) | (14.2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34.4) | (61.3) | (61.2) | (49.3) | (42.2) | (36.3) | (24.2) | (13.9) | (10.9) | (11.0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5.1) | (11.3) | (8.3) | (4.5) | (5.2) | (6.9) | (5.4) | (3.1) | (2.5) | (2.7) |
| | 사글세 | (3.0) | (11.2) | (7.8) | (2.0) | (2.3) | (3.5) | (3.0) | (2.1) | (2.0) | (2.4) |
| | 무 상 | (3.8) | (1.6) | (1.8) | (3.6) | (4.0) | (5.0) | (3.9) | (3.2) | (3.9) | (5.7) |
| 2015년 | 전 체 | 5,211 (100.0) | 162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자기 집 | (34.0) | (2.9) | (3.4) | (9.1) | (20.1) | (26.9) | (41.9) | (59.8) | (68.1) | (67.0) |
| | 전 세 | (16.0) | (7.8) | (12.6) | (24.2) | (20.8) | (15.5) | (13.4) | (12.4) | (11.1) | (10.5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36.0) | (65.2) | (63.8) | (52.2) | (43.9) | (40.3) | (30.3) | (18.3) | (12.6) | (12.1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6.1) | (11.6) | (9.7) | (6.4) | (6.5) | (7.9) | (6.8) | (3.9) | (2.8) | (2.8) |
| | 사글세 | (1.8) | (9.0) | (6.2) | (1.3) | (1.2) | (1.7) | (1.7) | (1.3) | (1.0) | (1.3) |
| | 무 상 | (6.0) | (3.6) | (4.3) | (6.8) | (7.6) | (7.7) | (6.0) | (4.3) | (4.4) | (6.3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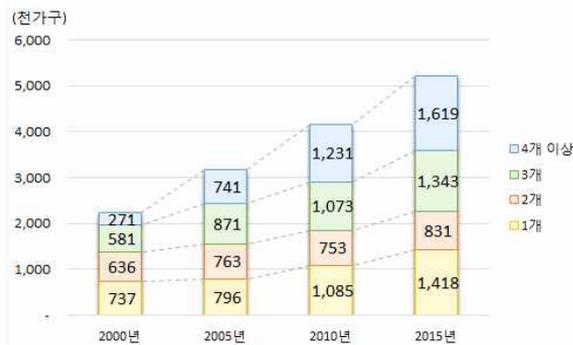
4. 사용방수별

1인 가구 중 사용방수 2개 이하는 감소하였고, 사용방수 4개 이상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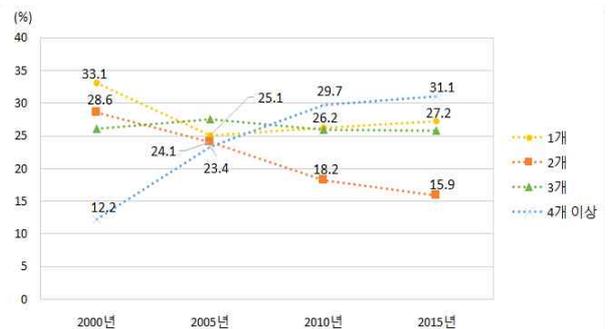
□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사용방수 ^{거실 및 식사용 방을 포함} 변화를 살펴보면

- 사용방수 「1개」의 비율은 2000년 33.1%에서 2015년 27.2%로 5.9%p 감소
- 사용방수 「4개 이상」은 2000년 12.2%에서 2015년 31.1%로 18.9%p 증가
- 사용방수 「2개」는 2000년 28.6%에서 2015년 15.9%로 12.7%p 감소
- 사용방수 「3개」의 비율은 2000년 26% 내외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

[1인 가구 사용방수별 분포: 2000-2015년]



[1인 가구 사용방수별 비율 : 2000-2015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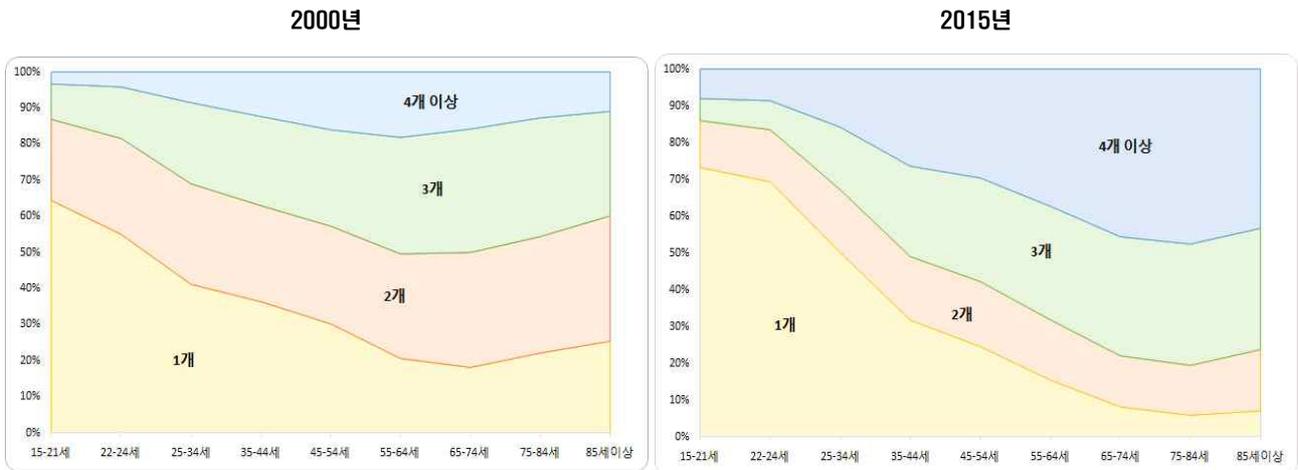


□ 연령대별로 사용방수 변화를 살펴보면

- (사용방수 1개)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증가하고, 35세 이상에서는 감소함
 - 2000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% 이상을 차지하였으나,
 - 2015년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%이상을 차지하여, 연령대가 확대됨
 - 2000년 15~21세(64.5%), 22~24세(55.0%), 25~34세(41.2%)
 - 2015년 15~21세(73.2%), 22~24세(69.4%), 25~34세(50.1%)

- (사용방수 4개 이상)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하였는데,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
 - 2000년 3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0~20%정도 비율을 보임
 - 2015년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주된 사용방수로 나타남
 - 2000년 55~64세(18.1%), 65~74세(15.8%), 75~84세(12.3%), 85세 이상(10.9%)
 - 2015년 55~64세(37.3%), 65~74세(45.6%), 75~84세(47.6%), 85세 이상(43.3%)
- (사용방수 2개) 2000년 대비 2015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- (사용방수 3개) 2000년 대비 2015년 4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감소
 - 2000년 15~21세(9.7%), 22~24세(14.3%), 25~34세(22.5%), 35~44세(24.7%)
 - 2015년 15~21세(6.0%), 22~24세(7.9%), 25~34세(17.0%), 35~44세(24.6%)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비율 : 2000년, 2015년]



< 표 13 > 1인 가구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체 | 2,224 (100.0) | 104 (100.0) | 138 (100.0) | 551 (100.0) | 348 (100.0) | 246 (100.0) | 293 (100.0) | 356 (100.0) | 167 (100.0) | 21 (100.0) |
| | 1개 | (33.1) | (64.5) | (55.0) | (41.2) | (36.3) | (30.2) | (20.6) | (18.1) | (21.4) | (25.4) |
| | 2개 | (28.6) | (22.5) | (26.6) | (27.9) | (26.6) | (27.1) | (29.0) | (31.9) | (34.3) | (34.8) |
| | 3개 | (26.1) | (9.7) | (14.3) | (22.5) | (24.7) | (26.7) | (32.3) | (34.2) | (31.9) | (29.0) |
| | 4개 이상 | (12.2) | (3.2) | (4.1) | (8.5) | (12.3) | (16.0) | (18.1) | (15.8) | (12.3) | (10.9) |
| 2005년 | 전체 | 3,170 (100.0) | 110 (100.0) | 201 (100.0) | 774 (100.0) | 502 (100.0) | 427 (100.0) | 372 (100.0) | 472 (100.0) | 274 (100.0) | 36 (100.0) |
| | 1개 | (25.1) | (61.9) | (53.7) | (38.3) | (27.3) | (20.3) | (11.3) | (7.0) | (7.5) | (9.0) |
| | 2개 | (24.1) | (24.5) | (26.9) | (26.2) | (25.9) | (25.1) | (20.9) | (19.5) | (22.6) | (25.9) |
| | 3개 | (27.5) | (9.2) | (13.4) | (22.9) | (28.0) | (29.6) | (32.2) | (34.5) | (34.6) | (33.2) |
| | 4개 이상 | (23.4) | (4.4) | (5.9) | (12.6) | (18.8) | (25.1) | (35.6) | (39.0) | (35.3) | (31.9) |
| 2010년 | 전체 | 4,142 (100.0) | 123 (100.0) | 197 (100.0) | 918 (100.0) | 678 (100.0) | 638 (100.0) | 522 (100.0) | 573 (100.0) | 419 (100.0) | 74 (100.0) |
| | 1개 | (26.2) | (70.4) | (65.7) | (43.2) | (28.4) | (21.6) | (13.0) | (7.3) | (6.4) | (8.2) |
| | 2개 | (18.2) | (17.3) | (18.8) | (20.8) | (20.0) | (19.6) | (16.4) | (13.9) | (15.2) | (18.4) |
| | 3개 | (25.9) | (7.0) | (9.4) | (19.7) | (25.9) | (28.4) | (30.2) | (32.3) | (33.7) | (33.4) |
| | 4개 이상 | (29.7) | (5.3) | (6.1) | (16.3) | (25.8) | (30.4) | (40.5) | (46.4) | (44.7) | (40.0) |
| 2015년 | 전체 | 5,211 (100.0) | 162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1개 | (27.2) | (73.2) | (69.4) | (50.1) | (31.7) | (24.5) | (15.4) | (8.1) | (5.8) | (7.0) |
| | 2개 | (15.9) | (12.8) | (14.2) | (17.1) | (17.3) | (17.7) | (16.4) | (13.9) | (13.6) | (16.7) |
| | 3개 | (25.8) | (6.0) | (7.9) | (17.0) | (24.6) | (28.2) | (30.9) | (32.4) | (33.0) | (33.0) |
| | 4개 이상 | (31.1) | (8.0) | (8.6) | (15.8) | (26.4) | (29.6) | (37.3) | (45.6) | (47.6) | (43.3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5.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유무별

1인 가구의 「종교 있음」 및 「사회활동 참여」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
□ 1인 가구의 「종교 있음」 비율은 2005년 46.3%에서 2015년 41.9%로 4.4%p 감소하였고, 연령대별로는 8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

○ 특히,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「종교 있음」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

- 2005년 15~21세(37.8%), 22~24세(37.6%)
- 2015년 15~21세(25.7%), 22~24세(25.8%)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「종교 있음」 비율 : 2005년, 2015년]



< 표 14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종교유무 변화 추이 (2005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5년 | 전 체 | 3,138 (100.0) | 109 (100.0) | 199 (100.0) | 763 (100.0) | 495 (100.0) | 423 (100.0) | 370 (100.0) | 470 (100.0) | 273 (100.0) | 36 (100.0) |
| | 종교 있음 | (46.3) | (37.8) | (37.6) | (33.4) | (35.9) | (47.2) | (57.4) | (64.0) | (63.3) | (54.6) |
| | 종교 없음 | (53.7) | (62.2) | (62.4) | (66.6) | (64.1) | (52.8) | (42.6) | (36.0) | (36.7) | (45.4) |
| 2015년 | 전 체 | 5,211 (100.0) | 162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종교 있음 | (41.9) | (25.7) | (25.8) | (28.3) | (30.7) | (37.4) | (49.3) | (58.1) | (59.4) | (55.0) |
| | 종교 없음 | (58.1) | (74.3) | (74.2) | (71.7) | (69.3) | (62.6) | (50.7) | (41.9) | (40.6) | (45.0) |

* 2005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□ 1인 가구의 「사회활동 참여」는 2010년 26.6%에서 2015년 23.3%로 3.3%p 감소

○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「사회활동 참여」 비율은 감소하였고, 특히 25~54세 연령대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짐

- 2010년 25~34세(27.3%), 35~44세(28.7%), 45~54세(30.9%)
- 2015년 25~34세(23.3%), 35~44세(24.9%), 45~54세(26.9%)

[1인 가구의 연령대별 「사회활동 참여」 비율 : 2010년, 2015년]



< 표 15 >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여부 변화 추이 (201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1인 가구 (22세 이상)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~54세 | 55~64세 | 65~74세 | 75~84세 | 85세 이상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10년 | 전 체 | 4,016 (100.0) | 199 (100.0) | 922 (100.0) | 667 (100.0) | 632 (100.0) | 521 (100.0) | 580 (100.0) | 421 (100.0) | 73 (100.0) |
| | 참여함 | (26.6) | (20.0) | (27.3) | (28.7) | (30.9) | (30.0) | (25.6) | (18.3) | (11.7) |
| | 참여안함 | (73.4) | (80.0) | (72.7) | (71.3) | (69.1) | (70.0) | (74.4) | (81.7) | (88.3) |
| 2015년 | 전 체 | 5,049 (100.0) | 255 (100.0) | 915 (100.0) | 747 (100.0) | 794 (100.0) | 824 (100.0) | 734 (100.0) | 637 (100.0) | 142 (100.0) |
| | 참여함 | (23.3) | (19.0) | (23.3) | (24.9) | (26.9) | (27.2) | (23.7) | (16.0) | (9.4) |
| | 참여안함 | (76.7) | (81.0) | (76.7) | (75.1) | (73.1) | (72.8) | (76.3) | (84.0) | (90.6) |

* 2010년 이전은 10% 표본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6. 직업(소분류)별 상위 10위

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이 2005년까지는 「작물재배 종사자」가 가장 많았으나, 2010년에는 「경영관련 사무원」으로 변화

- 2015년 직업별(소분류)로는 경영관련 사무원이 19만 1천 가구(6.7%)로 가장 많고, 매장 판매 종사자 16만 3천 가구(5.7%), 작물재배 종사자 12만 6천 가구(4.4%) 순으로 나타남

< 표 16 >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별 상위 10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순위 | 2000년 | | | 2005년 | | | 2010년 | | | 2015년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| 직업 | 가구 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 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 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 수 | 구성비 |
| 1 |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| 158 | 12.8 | 작물재배 종사자 | 191 | 11.3 | 경영관련 사무원 | 169 | 7.2 | 경영관련 사무원 | 191 | 6.7 |
| 2 |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| 84 | 6.8 | 경영 관련 사무원 | 120 | 7.1 | 작물재배 종사자 | 150 | 6.4 | 매장 판매 종사자 | 163 | 5.7 |
| 3 |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| 61 | 5.0 | 매장 판매 종사자 | 119 | 7.0 | 매장 판매 종사자 | 140 | 6.0 | 작물재배 종사자 | 126 | 4.4 |
| 4 | 음식 조리 종사자 | 57 | 4.6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70 | 4.1 | 주방장 및 조리사 | 87 | 3.7 | 주방장 및 조리사 | 117 | 4.1 |
| 5 | 자동차 운전 종사자 | 34 | 2.8 | 주방장 및 조리사 | 65 | 3.8 | 자동차 운전원 | 71 | 3.1 |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| 88 | 3.0 |
| 6 | 계수사무 종사자 | 33 | 2.6 | 자동차 운전원 | 49 | 2.9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59 | 2.5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86 | 3.0 |
| 7 |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| 31 | 2.5 |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| 48 | 2.8 |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| 59 | 2.5 | 자동차 운전원 | 76 | 2.6 |
| 8 | 일반관리자 | 28 | 2.2 | 문리/기술 및 예능 강사 | 41 | 2.4 | 문리/기술 및 예능 강사 | 57 | 2.5 |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| 71 | 2.5 |
| 9 | 가사 및 관련 보조원, 청소 및 세탁 종사자 | 27 | 2.2 | 회계 및 경리 사무원 | 38 | 2.2 | 영업종사자 | 53 | 2.2 | 영업종사자 | 70 | 2.4 |
| 10 | 소매 방문판매 및 이동판매 종사자 | 24 | 2.0 |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| 37 | 2.2 |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| 46 | 2.0 |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| 62 | 2.2 |

*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 제5차,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

Ⅲ. 미혼 1인 가구 변화 (표본부문 '00년~'15년)

1. 연령대별, 지역별

미혼 1인 가구의 25~34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, 35~44세와 45세 이상은 증가

- 1인 가구 중 미혼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25~3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, 2000년 51.9%에서 2015년에는 38.0%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
- 35~44세의 비중은 2000년 17.5%에서 2015년 24.3%로, 45세 이상에서는 2000년 5.5%에서 2015년 19.5%로 지속적으로 증가함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: 2000-2015년]

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< 표 17 >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변화 추이 (2000년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1인 가구 중 미혼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세 이상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000년 | 956 (100.0) | 103 (10.8) | 136 (14.3) | 496 (51.9) | 168 (17.5) | 53 (5.5) |
| 2005년 | 1,427 (100.0) | 110 (7.7) | 200 (14.0) | 717 (50.3) | 286 (20.1) | 114 (8.0) |
| 2010년 | 1,843 (100.0) | 123 (6.7) | 196 (10.6) | 858 (46.5) | 446 (24.2) | 220 (12.0) |
| 2015년 | 2,284 (100.0) | 162 (7.1) | 254 (11.1) | 867 (38.0) | 556 (24.3) | 446 (19.5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동지역에서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감소하였고, 읍면지역에서는 증가함

□ 동읍면부별로 1인 가구 미혼 비율을 보면

○ 동지역에서 1인 가구 미혼 비율은 50%내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, 읍면지역에서는 1인 가구 미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- 동 부 : 52.1%('00년) → 52.7%('05년) → 50.8%('10년) → 49.4%('15년)
- 읍 부 : 27.2%('00년) → 28.7%('05년) → 32.0%('10년) → 31.8%('15년)
- 면 부 : 13.1%('00년) → 14.5%('05년) → 15.5%('10년) → 16.3%('15년)

[동읍면부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비율 : 2000-2015년]



□ 시도별로 살펴보면, 2000년 대비 2015년에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이 특광역시에서 서울은 60% 내외, 부산은 40% 내외로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, 다른 지역은 감소함

○ 도지역에서 경기, 강원, 충북은 감소하고, 다른 도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, 특히 제주도가 7.9%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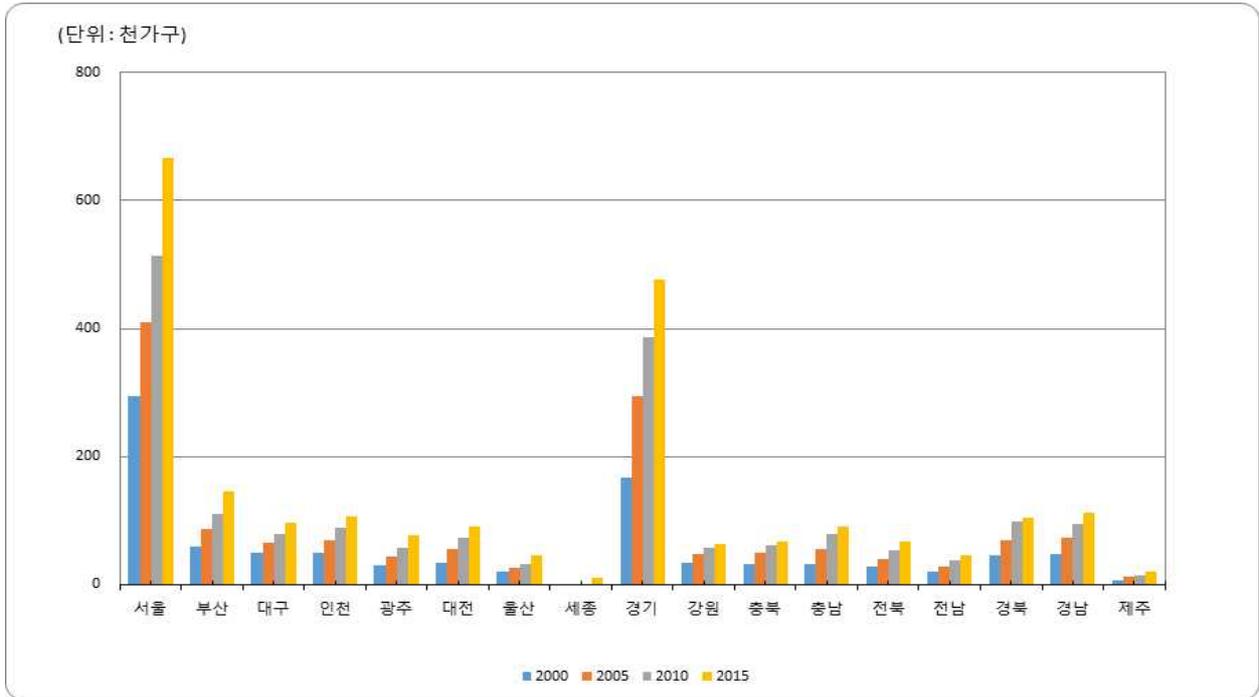
< 표 18 > 시도별 미혼 1인가구의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5년 | | 2010년 | | 2015년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인 가구 중 미혼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인 가구 중 미혼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인 가구 중 미혼 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인 가구 중 미혼 |
| 전국 | 2,223 (100.0) | 956 (43.0) | 3,170 (100.0) | 1,427 (45.0) | 4,142 (100.0) | 1,843 (44.5) | 5,211 (100.0) | 2,284 (43.8) |
| 동부 | 1,642 (100.0) | 855 (52.1) | 2,439 (100.0) | 1,285 (52.7) | 3,244 (100.0) | 1,647 (50.8) | 4,123 (100.0) | 2,037 (49.4) |
| 읍부 | 180 (100.0) | 49 (27.2) | 253 (100.0) | 72 (28.7) | 347 (100.0) | 111 (32.0) | 451 (100.0) | 143 (31.8) |
| 면부 | 401 (100.0) | 53 (13.1) | 478 (100.0) | 69 (14.5) | 552 (100.0) | 85 (15.5) | 637 (100.0) | 104 (16.3) |
| 서울 | 502 (100.0) | 295 (58.7) | 676 (100.0) | 410 (60.7) | 855 (100.0) | 514 (60.1) | 1,115 (100.0) | 667 (59.8) |
| 부산 | 154 (100.0) | 59 (38.6) | 222 (100.0) | 87 (39.0) | 291 (100.0) | 111 (38.2) | 362 (100.0) | 145 (40.2) |
| 대구 | 108 (100.0) | 49 (45.6) | 148 (100.0) | 66 (44.4) | 192 (100.0) | 80 (41.6) | 240 (100.0) | 97 (40.4) |
| 인천 | 97 (100.0) | 49 (50.4) | 141 (100.0) | 70 (49.3) | 191 (100.0) | 89 (46.4) | 243 (100.0) | 107 (44.0) |
| 광주 | 60 (100.0) | 31 (51.8) | 87 (100.0) | 44 (50.0) | 123 (100.0) | 58 (47.7) | 163 (100.0) | 77 (47.0) |
| 대전 | 63 (100.0) | 35 (55.8) | 99 (100.0) | 55 (56.0) | 135 (100.0) | 74 (55.0) | 169 (100.0) | 90 (53.2) |
| 울산 | 43 (100.0) | 20 (47.5) | 58 (100.0) | 27 (46.2) | 77 (100.0) | 33 (43.2) | 104 (100.0) | 45 (43.0) |
| 세종 | - - | - - | - - | - - | - - | - - | 22 (100.0) | 11 (52.0) |
| 경기 | 337 (100.0) | 168 (49.8) | 563 (100.0) | 294 (52.1) | 777 (100.0) | 387 (49.7) | 1,028 (100.0) | 477 (46.4) |
| 강원 | 91 (100.0) | 35 (37.8) | 122 (100.0) | 47 (38.7) | 155 (100.0) | 57 (36.4) | 190 (100.0) | 63 (33.1) |
| 충북 | 79 (100.0) | 32 (41.0) | 115 (100.0) | 49 (43.0) | 150 (100.0) | 62 (41.5) | 174 (100.0) | 67 (38.3) |
| 충남 | 101 (100.0) | 32 (32.1) | 149 (100.0) | 55 (36.8) | 202 (100.0) | 79 (39.0) | 236 (100.0) | 90 (38.0) |
| 전북 | 105 (100.0) | 29 (27.7) | 137 (100.0) | 40 (29.5) | 175 (100.0) | 53 (30.5) | 215 (100.0) | 68 (31.4) |
| 전남 | 131 (100.0) | 21 (16.4) | 164 (100.0) | 28 (17.2) | 197 (100.0) | 38 (19.3) | 219 (100.0) | 45 (20.4) |
| 경북 | 164 (100.0) | 45 (27.5) | 225 (100.0) | 70 (31.0) | 290 (100.0) | 98 (34.0) | 325 (100.0) | 105 (32.2) |
| 경남 | 163 (100.0) | 48 (29.2) | 226 (100.0) | 73 (32.2) | 286 (100.0) | 94 (32.7) | 347 (100.0) | 112 (32.2) |
| 제주 | 26 (100.0) | 7 (28.0) | 38 (100.0) | 13 (33.3) | 45 (100.0) | 15 (34.0) | 59 (100.0) | 21 (35.9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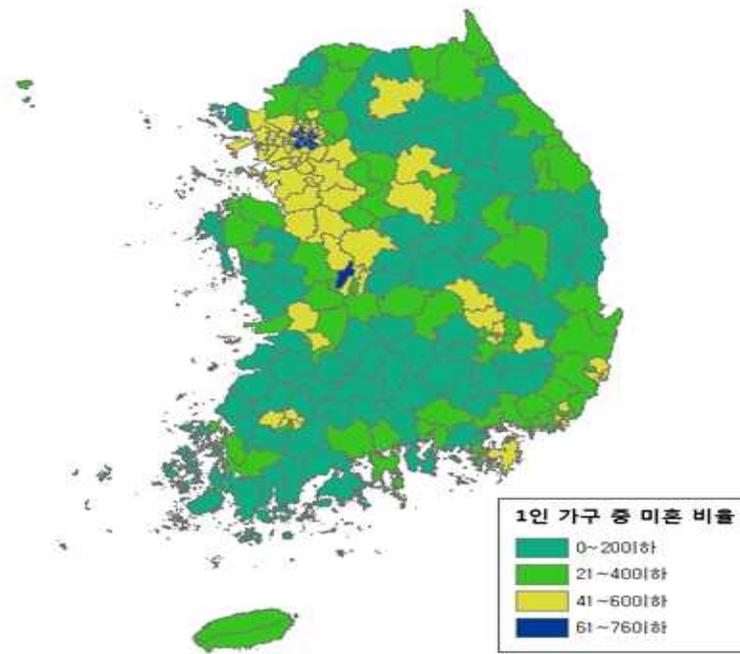
* 2000년은 미상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[시도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분포 : 2000-2015년]



- 시군구별로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을 보면
 - 2000년에는 상위 20개 지역 중 12개가 서울에 있었으나, 2015년에는 15개로 증가하였음

[시군구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비율 : 2015년]



< 표 19 >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 상위 20개 지역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%)

| 순위 | 2000년 | | 2005년 | | 2010년 | | 2015년 |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1 | 서울 광진구 | 68.6 | 서울 관악구 | 79.4 | 서울 관악구 | 78.0 | 서울 관악구 | 76.2 |
| 2 | 서울 관악구 | 68.4 | 서울 강남구 | 72.8 | 서울 강남구 | 71.9 | 서울 마포구 | 69.9 |
| 3 | 서울 동작구 | 67.6 | 서울 광진구 | 69.6 | 서울 동작구 | 69.5 | 서울 동작구 | 69.5 |
| 4 | 서울 강남구 | 66.6 | 서울 마포구 | 68.9 | 서울 마포구 | 68.8 | 서울 광진구 | 69.2 |
| 5 | 서울 서초구 | 65.7 | 서울 서초구 | 67.0 | 서울 광진구 | 68.3 | 서울 강남구 | 68.4 |
| 6 | 경기 안산시 | 65.4 | 서울 동작구 | 66.7 | 대전 유성구 | 66.6 | 서울 서초구 | 64.3 |
| 7 | 대전 유성구 | 64.4 | 대전 유성구 | 66.2 | 서울 서초구 | 65.4 | 대전 유성구 | 64.2 |
| 8 | 인천 연수구 | 64.1 | 경기 시흥시 | 65.6 | 경기 오산시 | 64.0 | 서울 성동구 | 63.9 |
| 9 | 서울 마포구 | 64.0 | 경기 수원시 | 64.9 | 서울 서대문구 | 62.5 | 서울 동대문구 | 63.4 |
| 10 | 대전 서구 | 62.6 | 경기 오산시 | 64.2 | 서울 동대문구 | 62.4 | 서울 서대문구 | 62.8 |
| 11 | 경기 수원시 | 62.5 | 경기 안산시 | 63.1 | 경기 수원시 | 62.2 | 서울 종로구 | 62.0 |
| 12 | 충북 청주시 | 62.2 | 서울 서대문구 | 62.6 | 경북 구미시 | 61.5 | 서울 용산구 | 62.0 |
| 13 | 서울 송파구 | 60.8 | 대전 서구 | 62.1 | 경북 경산시 | 61.0 | 서울 영등포구 | 59.6 |
| 14 | 서울 성동구 | 60.7 | 서울 송파구 | 61.5 | 서울 종로구 | 60.9 | 충남 천안시 | 58.8 |
| 15 | 서울 금천구 | 59.5 | 충북 청주시 | 61.4 | 서울 성북구 | 60.2 | 서울 송파구 | 58.7 |
| 16 | 서울 서대문구 | 59.3 | 경북 경산시 | 61.1 | 서울 용산구 | 60.1 | 서울 성북구 | 58.1 |
| 17 | 서울 영등포구 | 58.7 | 경북 구미시 | 60.6 | 서울 성동구 | 60.0 | 경북 구미시 | 57.6 |
| 18 | 서울 동대문구 | 58.5 | 서울 동대문구 | 60.4 | 서울 송파구 | 59.5 | 경기 수원시 | 57.5 |
| 19 | 경남 창원시 | 57.8 | 서울 성동구 | 60.1 | 충남 천안시 | 59.4 | 경기 오산시 | 57.0 |
| 20 | 경기 부천시 | 57.7 | 서울 종로구 | 59.3 | 대전 서구 | 59.4 | 서울 중구 | 56.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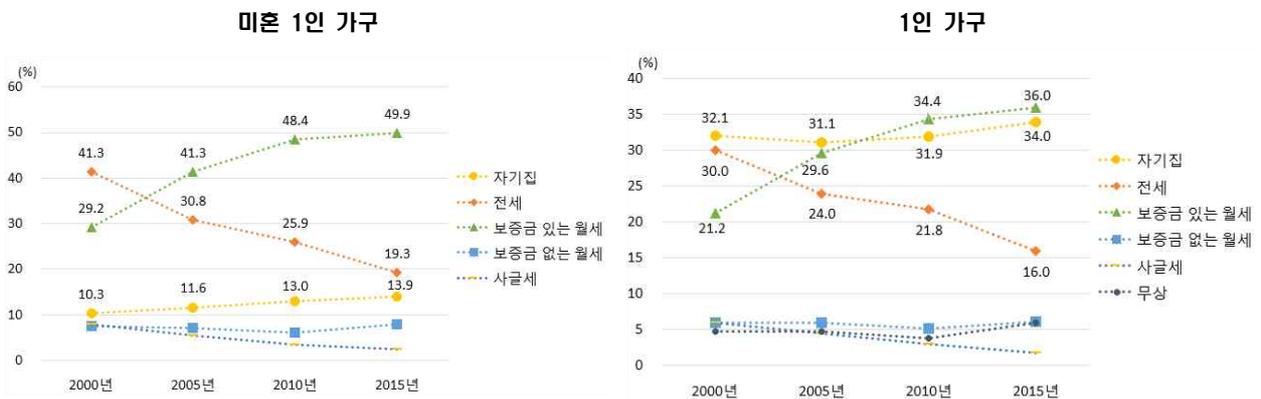
2. 점유형태별

미혼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0년 「전세」였으나,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로 변화

□ 2000년 이후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

- 「자기 집」인 비율은 1인 가구 중 미혼은 10%대 이상, 1인 가구는 30%대를 유지
 - 미혼 1인 가구 10.3%('00년) → 11.6%('05년) → 13.0%('10년) → 13.9%('15년)
 - 1인 가구 32.1%('00년) → 31.1%('05년) → 31.9%('10년) → 34.0%('15년)
- 「전세」는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41.3%에서 2015년 19.3%로 22.0%p 감소하여,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4.0%p 감소보다 감소폭이 큼
 - 미혼 1인 가구 41.3%('00년) → 30.8%('05년) → 25.9%('10년) → 19.3%('15년)
 - 1인 가구 30.0%('00년) → 24.0%('05년) → 21.8%('10년) → 16.0%('15년)
- 「보증금 있는 월세」는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29.2%에서 2015년 49.9%로 20.7%p 증가하여,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4.8%p 증가보다 증가폭이 큼
 - 미혼 1인 가구 29.2%('00년) → 41.3%('05년) → 48.4%('10년) → 49.9%('15년)
 - 1인 가구 21.2%('00년) → 29.6%('05년) → 34.4%('10년) → 36.0%('15년)

[점유형태별 비율 : 2000-2015년]



[점유형태별 분포 : 2000-2015년]



< 표 20 >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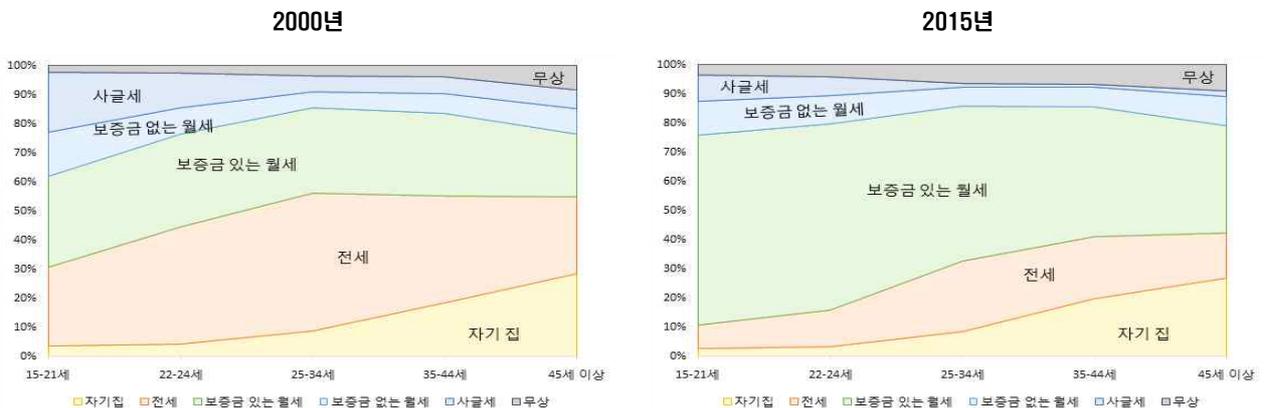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| 전체 | 자기 집 | 전세 | 보증금 있는 월세 | 보증금 없는 월세 | 사글세 | 무상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미혼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2000년 | 956 (100.0) | 99 (10.3) | 395 (41.3) | 280 (29.2) | 72 (7.5) | 77 (8.0) | 35 (3.6) |
| | 2005년 | 1,427 (100.0) | 165 (11.6) | 439 (30.8) | 589 (41.3) | 103 (7.2) | 78 (5.4) | 53 (3.7) |
| | 2010년 | 1,843 (100.0) | 240 (13.0) | 477 (25.9) | 891 (48.4) | 111 (6.0) | 65 (3.5) | 59 (3.2) |
| | 2015년 | 2,284 (100.0) | 317 (13.9) | 441 (19.3) | 1,140 (49.9) | 181 (7.9) | 57 (2.5) | 148 (6.5) |
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2000년 | 2,223 (100.0) | 715 (32.1) | 667 (30.0) | 472 (21.2) | 133 (6.0) | 133 (6.0) | 104 (4.7) |
| | 2005년 | 3,170 (100.0) | 986 (31.1) | 762 (24.0) | 940 (29.6) | 189 (6.0) | 141 (4.4) | 153 (4.8) |
| | 2010년 | 4,142 (100.0) | 1,323 (31.9) | 903 (21.8) | 1,426 (34.4) | 210 (5.1) | 124 (3.0) | 157 (3.8) |
| | 2015년 | 5,211 (100.0) | 1,774 (34.0) | 831 (16.0) | 1,875 (36.0) | 320 (6.1) | 96 (1.8) | 315 (6.0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□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

- (자기 집) 2000년 대비 2015년 「자기 집」 거주 비율이 큰 변화가 없음
 - 2000년 25~34세(8.7%), 35~44세(18.4%), 45세 이상(28.4%)
 - 2015년 25~34세(8.6%), 35~44세(19.7%), 45세 이상(26.9%)
- (전세) 2000년에 대비하여 2015년 「전세」 거주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고, 특히 22~34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큼
 - 2000년 25~34세는 47.5%, 35~44세는 36.8%로 해당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였으나,
 -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5~44세 연령대에서만 20%대를 유지함
 - 2000년 22~24세(40.5%), 25~34세(47.5%), 35~44세(36.8%)
 - 2015년 22~24세(12.6%), 25~34세(24.1%), 35~44세(21.4%)
- (보증금 있는 월세) 2005년에 모든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되었고,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% 이상으로 나타남
 - 2000년에는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30%보다 약간 높았으나,
 - 지속적으로 증가하여, 2015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60%이상이고, 25~34세에서도 53.2%로 나타남
 - 2000년 15~21세(31.4%), 22~24세(31.7%), 25~34세(29.2%)
 - 2015년 15~21세(65.2%), 22~24세(63.9%), 25~34세(53.2%)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: 2000년, 2015년]



< 표 21 >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미혼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세 이상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956 (100.0) | 103 (100.0) | 136 (100.0) | 496 (100.0) | 168 (100.0) | 53 (100.0) |
| | 자기 집 | (10.3) | (3.6) | (4.2) | (8.7) | (18.4) | (28.4) |
| | 전 세 | (41.3) | (27.1) | (40.5) | (47.5) | (36.8) | (26.5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29.2) | (31.4) | (31.7) | (29.2) | (28.4) | (21.7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7.5) | (14.9) | (9.1) | (5.6) | (6.9) | (8.7) |
| | 사글세 | (8.0) | (20.6) | (12.0) | (5.3) | (5.7) | (6.3) |
| | 무 상 | (3.6) | (2.4) | (2.5) | (3.6) | (3.9) | (8.4) |
| 2005년 | 전 체 | 1,427 (100.0) | 110 (100.0) | 200 (100.0) | 717 (100.0) | 286 (100.0) | 114 (100.0) |
| | 자기 집 | (11.6) | (3.3) | (4.5) | (9.3) | (18.8) | (28.1) |
| | 전 세 | (30.8) | (17.2) | (25.9) | (35.7) | (30.3) | (22.7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41.3) | (48.3) | (48.1) | (42.2) | (36.7) | (28.7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7.2) | (13.4) | (9.0) | (5.7) | (6.7) | (8.6) |
| | 사글세 | (5.4) | (15.6) | (9.9) | (3.4) | (3.7) | (5.0) |
| | 무 상 | (3.7) | (2.2) | (2.6) | (3.7) | (3.8) | (7.0) |
| 2010년 | 전 체 | 1,843 (100.0) | 123 (100.0) | 196 (100.0) | 858 (100.0) | 446 (100.0) | 220 (100.0) |
| | 자기 집 | (13.0) | (3.2) | (3.7) | (9.5) | (19.3) | (28.0) |
| | 전 세 | (25.9) | (11.3) | (17.2) | (30.1) | (28.0) | (21.4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48.4) | (61.4) | (61.3) | (50.4) | (42.3) | (33.9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6.0) | (11.3) | (8.3) | (4.6) | (5.1) | (8.1) |
| | 사글세 | (3.5) | (11.2) | (7.8) | (2.1) | (2.2) | (3.7) |
| | 무 상 | (3.2) | (1.6) | (1.8) | (3.4) | (3.1) | (4.9) |
| 2015년 | 전 체 | 2,284 (100.0) | 162 (100.0) | 254 (100.0) | 867 (100.0) | 556 (100.0) | 446 (100.0) |
| | 자기 집 | (13.9) | (2.9) | (3.3) | (8.6) | (19.7) | (26.9) |
| | 전 세 | (19.3) | (7.8) | (12.6) | (24.1) | (21.4) | (15.4) |
| | 보증금 있는 월세 | (49.9) | (65.2) | (63.9) | (53.2) | (44.6) | (36.7) |
| | 보증금 없는 월세 | (7.9) | (11.6) | (9.7) | (6.4) | (6.6) | (10.1) |
| | 사글세 | (2.5) | (9.0) | (6.3) | (1.3) | (1.1) | (2.0) |
| | 무 상 | (6.5) | (3.5) | (4.2) | (6.4) | (6.6) | (8.9) |

* 2000년은 미상 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3. 사용방수별

미혼 1인 가구의 「사용방수 2개」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, 「4개 이상」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

□ 2000년 이후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^{거실 및 식사용 방을 포함} 변화를 보면

○ 「사용방수 1개」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45.3%, 2015년 45.2%로 비슷한데, 전체 1인 가구는 2000년 33.1%에서 2015년 27.2%로 5.9%p 감소

- 미혼 1인 가구 45.3%('00년) → 39.2%('05년) → 42.2%('10년) → 45.2%('15년)
- 1인 가구 33.1%('00년) → 25.1%('05년) → 26.2%('10년) → 27.2%('15년)

○ 「사용방수 2개」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26.9%에서 2015년 17.3%로 9.6%p 감소하여,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2.7%p 감소보다 감소 폭이 작음

- 미혼 1인 가구 26.9%('00년) → 26.6%('05년) → 20.6%('10년) → 17.3%('15년)
- 1인 가구 28.6%('00년) → 24.1%('05년) → 18.2%('10년) → 15.9%('15년)

○ 「사용방수 3개」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%내외를 유지하고, 전체 1인 가구도 25% 이상을 유지하여 큰 변화가 없음

- 미혼 1인 가구 20.1%('00년) → 21.9%('05년) → 20.3%('10년) → 19.4%('15년)
- 1인 가구 26.1%('00년) → 27.5%('05년) → 25.9%('10년) → 25.8%('15년)

○ 「사용방수 4개 이상」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7.7%에서 2015년 18.2%로 10.5%p 증가하여, 1인 가구의 18.9%p 증가보다 증가 폭이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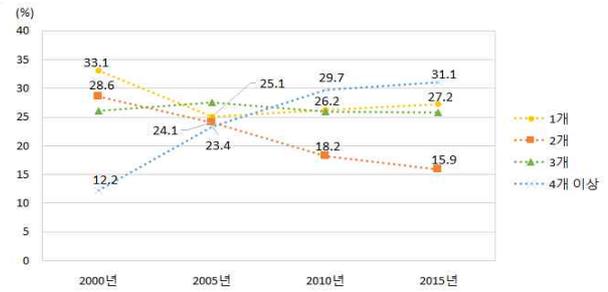
- 미혼 1인 가구 7.7%('00년) → 12.3%('05년) → 16.9%('10년) → 18.2%('15년)
- 1인 가구 12.2%('00년) → 23.4%('05년) → 29.7%('10년) → 31.1%('15년)

[사용방수별 비율 : 2000-2015년]

미혼 1인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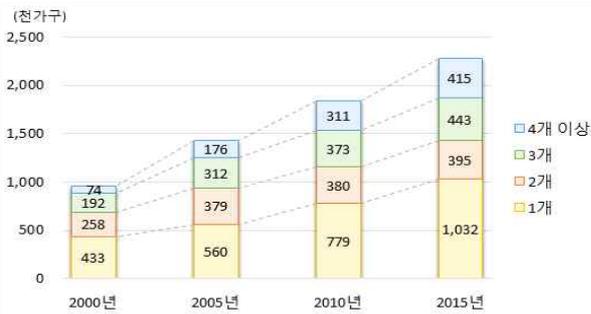


1인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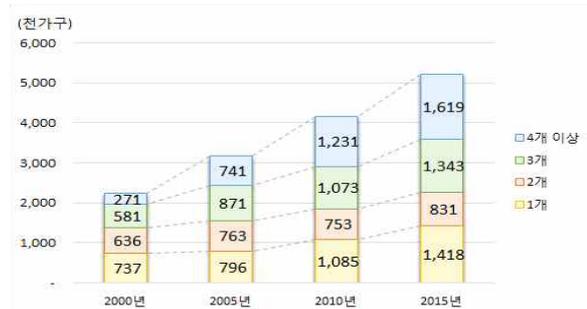


[사용방수별 분포: 2000-2015년]

미혼 1인 가구



1인 가구



< 표 22 >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전체 | 1개 | 2개 | 3개 | 4개 이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미혼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2000년 | 956 (100.0) | 433 (45.3) | 258 (26.9) | 192 (20.1) | 74 (7.7) |
| | 2005년 | 1,427 (100.0) | 560 (39.2) | 379 (26.6) | 312 (21.9) | 176 (12.3) |
| | 2010년 | 1,843 (100.0) | 779 (42.2) | 380 (20.6) | 373 (20.3) | 311 (16.9) |
| | 2015년 | 2,284 (100.0) | 1,032 (45.2) | 395 (17.3) | 443 (19.4) | 415 (18.2) |
|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2000년 | 2,224 (100.0) | 737 (33.1) | 636 (28.6) | 581 (26.1) | 271 (12.2) |
| | 2005년 | 3,170 (100.0) | 795 (25.1) | 763 (24.1) | 871 (27.5) | 741 (23.4) |
| | 2010년 | 4,142 (100.0) | 1,085 (26.2) | 753 (18.2) | 1,073 (25.9) | 1,231 (29.7) |
| | 2015년 | 5,211 (100.0) | 1,418 (27.2) | 831 (15.9) | 1,343 (25.8) | 1,619 (31.1) |

□ 연령대별로 사용 방 수 변화를 살펴보면

- (사용방수 1개) 34세 이하에서 증가, 35세 이상에서는 감소
 - 2000년 24세 이하에서 50%이상이었으나, 2015년에는 25~34세까지 확대됨
 - 2000년 15~21세(64.7%), 22~24세(55.3%), 25~34세(42.2%)
 - 2015년 15~21세(73.2%), 22~24세(69.5%), 25~34세(51.4%)
- (사용방수 2개) 2000년 대비 2015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, 특히 22~24세 및 25~34세에서 10.0%p 이상 감소
- (사용방수 3개) 3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는데, 45세 이상에서는 증가함
 - 2000년 25~34세(21.8%), 35~44세(25.0%), 45세 이상(24.7%)
 - 2015년 25~34세(16.6%), 35~44세(24.9%), 45세 이상(29.4%)
- (사용방수 4개 이상)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, 특히 35세 이상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
 - 2000년 3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0%대였으나, 2015년에는 25%내외의 비중을 차지함
 - 2000년 25~34세(7.8%), 35~44세(11.3%), 45세 이상(13.2%)
 - 2015년 25~34세(14.7%), 35~44세(24.5%), 45세 이상(26.2%)

[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비율 : 2000년, 2015년]



< 표 23 >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구분 | | 미혼 1인 가구 (15세 이상) | 15~21세 | 22~24세 | 25~34세 | 35~44세 | 45세 이상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0년 | 전 체 | 956 (100.0) | 103 (100.0) | 136 (100.0) | 496 (100.0) | 168 (100.0) | 53 (100.0) |
| | 1개 | (45.3) | (64.7) | (55.3) | (42.2) | (37.2) | (35.5) |
| | 2개 | (26.9) | (22.4) | (26.6) | (28.2) | (26.5) | (26.6) |
| | 3개 | (20.1) | (9.7) | (14.1) | (21.8) | (25.0) | (24.7) |
| | 4개 이상 | (7.7) | (3.2) | (4.0) | (7.8) | (11.3) | (13.2) |
| 2005년 | 전 체 | 1,427 (100.0) | 110 (100.0) | 200 (100.0) | 717 (100.0) | 286 (100.0) | 114 (100.0) |
| | 1개 | (39.2) | (62.0) | (53.9) | (39.3) | (27.4) | (20.9) |
| | 2개 | (26.6) | (24.5) | (26.9) | (26.7) | (26.3) | (27.9) |
| | 3개 | (21.9) | (9.2) | (13.4) | (22.4) | (28.3) | (29.9) |
| | 4개 이상 | (12.3) | (4.4) | (5.8) | (11.7) | (18.0) | (21.3) |
| 2010년 | 전 체 | 1,843 (100.0) | 123 (100.0) | 196 (100.0) | 858 (100.0) | 446 (100.0) | 220 (100.0) |
| | 1개 | (42.2) | (70.5) | (65.9) | (44.7) | (29.2) | (22.2) |
| | 2개 | (20.6) | (17.3) | (18.8) | (21.3) | (20.6) | (21.5) |
| | 3개 | (20.3) | (6.9) | (9.3) | (19.3) | (26.2) | (29.3) |
| | 4개 이상 | (16.9) | (5.3) | (6.0) | (14.7) | (24.0) | (27.0) |
| 2015년 | 전 체 | 2,284 (100.0) | 162 (100.0) | 254 (100.0) | 867 (100.0) | 556 (100.0) | 446 (100.0) |
| | 1개 | (45.2) | (73.2) | (69.5) | (51.4) | (32.8) | (24.4) |
| | 2개 | (17.3) | (12.8) | (14.2) | (17.3) | (17.9) | (20.0) |
| | 3개 | (19.4) | (6.0) | (7.8) | (16.6) | (24.9) | (29.4) |
| | 4개 이상 | (18.2) | (8.0) | (8.5) | (14.7) | (24.5) | (26.2) |

* 2000년은 미상제외,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% 표본 자료임

4. 직업(소분류)별 상위 10위

미혼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은 2000년에 「소매업체 판매 종사자」가 가장 많았으나, 2005년 이후에는 「경영관련 사무원」으로 변화

□ 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은 경영관련 사무원이 12만 9천 가구(8.1%)로 가장 많고, 매장 판매 종사자 9만 2천 가구(5.8%), 음식서비스종사자 4만 8천 가구(3.0%) 순으로 나타남

< 표 24 > 미혼 1인 가구의 직업(소분류)별 상위 10위 변화 추이 (2000-2015년)

(단위 : 천 가구, %)

| 순위 | 2000년 | | | 2005년 | | | 2010년 | | | 2015년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직업 | 가구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수 | 구성비 | 직업 | 가구수 | 구성비 |
| 1 |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| 48 | 7.4 | 경영관련 사무원 | 90 | 9.7 | 경영관련 사무원 | 120 | 9.1 | 경영관련 사무원 | 129 | 8.1 |
| 2 |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| 33 | 5.1 | 매장 판매 종사자 | 69 | 7.5 | 매장 판매 종사자 | 80 | 6.1 | 매장 판매 종사자 | 92 | 5.8 |
| 3 | 계수사무 종사자 | 28 | 4.3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40 | 4.4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46 | 3.5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48 | 3.0 |
| 4 | 자동차 운전 종사자 | 19 | 2.9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35 | 3.8 | 음식서비스 종사자 | 35 | 2.7 | 문리·기술 및 예능 강사 | 48 | 3.0 |
| 5 | 사무 지원 종사자 | 18 | 2.8 | 회계 및 경리 사무원 | 32 | 3.5 | 영업종사자 | 33 | 2.5 | 주방장 및 조리사 | 43 | 2.7 |
| 6 | 음식 조리 종사자 | 16 | 2.4 | 자동차 운전원 | 24 | 2.6 | 학교 교사 | 30 | 2.3 | 영업종사자 | 42 | 2.7 |
| 7 | 자재,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| 15 | 2.3 |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| 23 | 2.5 | 회계 및 경리 사무원 | 30 | 2.3 |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| 37 | 2.4 |
| 8 |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| 15 | 2.3 | 학교 교사 | 22 | 2.4 | 자동차 운전원 | 30 | 2.3 | 학교 교사 | 34 | 2.2 |
| 9 | 일반사무 종사자 | 14 | 2.1 |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| 19 | 2.1 | 주방장 및 조리사 | 29 | 2.2 | 회계 및 경리 사무원 | 34 | 2.1 |
| 10 | 컴퓨터관련 전문가 | 13 | 2.1 | 전기·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| 19 | 2.0 |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| 26 | 2.0 |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| 32 | 2.0 |

*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은 제5차,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

인구주택총조사 개요

I. 조사 개요

□ 연혁

- 인구총조사는 1925년,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
 -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
 - 2017년도에 실시한 인구총조사는 제21차, 주택총조사는 제13차에 해당
- 2015년도 이후 전수항목은 등록센서스로 전환, 1년 주기로 공표

□ 법적근거

- 통계법 제5조의 3(총조사 실시), 동법 제 17조 1항(지정통계)
 - 인구총조사 : 지정통계 제 101001호, 주택총조사 : 지정통계 제 101002호
-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: 기획재정부령 제501호, 2015.10.05.일부 개정

□ 기준시점

- 기준시점 : 조사년도 11. 1. 0시 기준

□ 조사대상

- 조사기준 시점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·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

□ 조사방법

-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(1년 주기)
 - 인구, 가구, 주택 등 기본부문 통계 작성
- 표본조사는 현장조사(방문면접조사) 실시(5년 주기)
 - 혼인, 교육, 사회활동 등 심층부문 통계 작성

II. 주요 용어 해설

1. 가구 :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

- 일반가구 :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,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, 1인 가구,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
- 집단가구 :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,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·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
- 외국인가구 :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*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‘일반가구’로 분류

2. 거처 :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,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

- 주택 :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

* 주택의 요건 :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,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,
③ 독립된 출입구,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

- 주택 이외의 거처 :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

- 오피스텔, 호텔,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,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, 판잣집, 비닐하우스 등

- 빈집 :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,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(폐가는 제외)